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러분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이와 똑같은 제목으로 얼마 전 게시판에 연재했던 글들을 함께 모아 보았습니다.>

환갑을 넘기긴 했으나 아직 자서전 따위를 쓸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으니 더군다나 그런 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심풀이로 내 어린 시절 얘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별 재미는 없을 듯합니다.
때때로 자화자찬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오늘부터 생각나는 대로 써서 올리려 합니다.

1. 유년 시절

나는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 자리를 잡고 살아오셨습니다.
(내 본관이 한산인데, 거기가 한산 이씨의 집성촌이거든요.)
목은 이색 선생님의 후손인데, 족보를 보면 최근에 와서는 우리 할아버님들이 거의 벼슬을 하지 못하셨더군요.
다만 애국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우리 집안 어른이신 것 하나만이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입니다.

아버님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낳고 자라셨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이 금강 건너 군산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리로 옮겨 살았고, 바로 그때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7개월만에 한국전쟁을 만났고, 우리 가족은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부산 시절 우리는 어떤 언덕 위의 초라한 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내 나이 또래의 주인집 딸과 가끔 싸웠던 일, 그리고 먼발치에서 본 영도 다리 정도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여쭙 봤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중고 시계 노점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굶어 죽지 않고 기적처럼 몇 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난 영문도 모르는 채 가족과 함께 갑자기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952년 아니면 53년이었을 테니, 내가 서너 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때 우리 가족의 짐은 여행용 트렁크 딱 두 개였습니다.
그 속에 옷가지며 식기들이 모두 들어있었던 거지요.
하여튼 내가 서울을 고향으로 여기게 된 것은, 그때부터 55년 이상을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서울에 올라와 청진동에 있는 집 하나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단칸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청진동은 지금 교보문고 있는 곳 부근인데, 그 당시에는 세종회관 자리가 공터였고 거기서 군
용 헬리콥터들이 뜨고 내렸습니다.
우리는 식탁이 없어 트렁크를 뉘어 놓고 그 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 위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철이 다 벗겨져서 검은 트렁크의 빨간 속살이 드러
났던 게 기억나네요.

나는 그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굶어죽지 않게 하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가끔 혼자서 집을 지킨 기억만 납니다.
아마도 아버님, 어머님이 돈을 벌기 위해 모두 밖에 나가셨나 봅니다.
어찌나 얌전했던지 어머님이 나가시기 전에 마루를 가리키며 "너 여기서 얌전하게 앉아 있어
라." 하시면 어머님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줄곧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신 후 거기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측은한 표정으로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느냐고 물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1년쯤 살다가 다시 성북동이란 곳의 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거기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1955년에는 다시 명륜동 3가의 셋집으로 이사했
습니다.
(내가 1956년 4월에 혜화국민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명륜동으로 이사한 날짜는 확실하게 기
억합니다.)
서울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던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다니면서 우리 집 살림이 점차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명륜동 시절에도 여전히 좁디좁은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아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나 명륜동에 셋집을 얻은 것이 내 인생에는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당시 서울 장안에서 명문으로 이름을 떨치던 혜화국민학교의 학군이었기 때문
입니다.
(당시에는 요즈음의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다만 갖고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셋집을 찾아
그곳으로 이사하셨답니다.
그런데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식으로 아무 것도 모른 채 명문 학군으로 이사하는 행운을 얻
은 것이었습니다.
후일 아버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명륜동이 그렇게 학군이 좋은 곳인지 모르고 이사 왔다고 회고
하시더군요.

1956년 4월 혜화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내 인생에는 새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른 국민학교에 입학했다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셋집을 전전하다가 혜화국민학교 학군으로 들어와 살게 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했지만 운이 역세게 좋았던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해 두어야 할 점이 있어요.
당시 우리가 가난하기는 했어도 사회의 최빈층은 아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 직후인 당시에는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한 끼도 거른 적이 없었으니 그래도 중산층에 속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50달러도 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지요.
그렇지만 혜화국민학교의 내 친구들 중에는 유복한 사회 지도층의 자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입시보다 중학교 입시가 더욱 치열했습니다.
어느 중학교를 다녔느냐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를 거의 결정하는 상황이었어서 모두들 중학입시에
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중학교에 입학하느냐는 어느 국민학교를 다녔느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국민학교 들어가느라고 위장전입을 하고 난리를 피웠던 것이지요.

정부는 서울 소재 국민학교를 특A - A - B 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중학교 입학성적이었습니다.
다섯 개 국민학교가 특A로 분류되었는데, 혜화국민학교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은 특A 국민학교 가려고 위장전입까지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했는데 거길
가게 된 거니 로또에 당첨된 셈이었다고나 할까요?

경기중학교 정원이 420명이었는데, 특A 출신이 50% 이상을 점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혜화국민학교에서 42명이 들어갔으니 10%를 차지한 셈입니다.
대략 반에서 5등 이내면 경기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특목고 정도의 입학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혜화국민학교가 특A 학교이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울 최고의 부촌을 학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학군이 혜화동과 명륜동 1, 2, 3가였는데, 혜화동과 명륜동 1가에는 그때 서울 장안에서 내로
라는 부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유한 집 자제들이 공부를 잘 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내가 거주하고 있던 명륜동 3가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뒤편의 산동네는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층과 가장 가난한 층이 공존하는 기묘한 구도였지요.

빈곤 출신인 나는 부촌이 만들어 놓은 좋은 분위기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 홍세화씨가 다니던 창경국민학교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홍세화씨뿐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선배님이신 정운찬 선생님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듣기로 창경국민학교에서는 경기중학교에 한 명도 못 보내다가 1960년에 처음으로 홍세화, 정운찬 두 분이 입학했다고 하네요.

그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분들에 비하면 나는 혜화국민학교에 들어간 덕으로 비교적 편하게 공부한 셈입니다.

혜화국민학교 입학 당시의 나는 그리 똑똑한 학생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수 부유층의 자제들만 유치원에 다녔는데, 그 친구들 이것저것 아는 게 무지 많더군요.

그 친구들이 하도 설쳐대는 바람에 나는 뒷전에서 맴돌기가 일쑤였습니다.

나처럼 유치원은 구경도 못한 채 겨우 한글 깨우치고 입학한 사람은 촌놈 취급 받기가 십상이었지요.

그런데 내가 근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문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신문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장난감도 없고 다른 놀 거리도 없어서 나에게는 신문이 유일한 놀 거리였을 겁니다.

그때는 신문에 한자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 적당히 때려서 읽었습니다.

그 덕분에 상식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한문 실력도 많이 늘어 학교 다닐 때 한문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명문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1학년 때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일,월,화,수,목,금,토를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 손 들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신문에서 본 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손을 들었고, 또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칠판에 나와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木에서 그만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옆을 결눈질해 보니 그 친구는 土까지 능름하게 다 써놓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유명 교수님의 아들인 그는 나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저 앞에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1학년 시절 기억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학교에 데리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 날은 삼촌이 나를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귀가하자마자 아버님의 불호령과 함께 매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습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그런데 난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맞았는데도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피하기 위해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애걸복걸했지만 뭘 안 그런다는 것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해야 내가 공부 시간에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이 죄목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광경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버님의 매타작이 아니었다면 문제 학생이 될 뻔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니까요.

내 1학년 시절은 조금 똑똑하지만 그리 뛰어나지는 않은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걸 고백해야 하겠네요.

교정에 나가 꽃동산을 만드는 실습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을 꺾어 꽃동산에 꽂아놓고 나무 이름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나 소나무는 누워서 떡먹기였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넓은 손바닥 같은 잎이 달린 가지를 들어 올리시면서 "이건 뭐지?"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도통 알 수가 없어 모두들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릴없이 주위를 돌아보니 마침 교정 주변을 둘러싼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하나에 '플라타너스'라는 팻말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옳거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른 나는 대뜸 손을 들고 "플라타너스요"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때든 지금이든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플라타너스라는 나무 이름을 알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덕분에 '척척박사'라는 칭호를 얻기는 했지만 일종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셈입니다.

그 놀라운 순발력을 칭찬해 주신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일은 애교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학교 1학년 시절 내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때는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자신 있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한글 정도 깨우친 것이 내가 쌓은 내공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터득하는 과정도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쓰려면 '이'자부터 써야 하는데, 이응 동그라미를 써놓고는 작대기를 왼쪽에다 그어야 할지 아니면 오른쪽에다 그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 일쑤였습니다.

왼쪽에 그으면 '이'자가 아니고 '10'이 되잖아요?

내 이름을 '10준구'라고 써서 온 가족의 웃음거리가 될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영어 책에는 10센트 짜리 dime을 집지 않고 5센트짜리 nickel을 집어든 소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미련해서 덩치가 큰 nickel을 집어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은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거듭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웃길래 계속 웃기려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준구'라고 써서 가족의 웃음을 자아낸 나는 순전히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가족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트리면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대기를 어느 쪽에 그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글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잘 말해주는 일화지요.

나는 말 배우는 것도 늦어 부모님의 속을 태웠다고 합니다.

두 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못해 혹시 농아가 아닌가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이 친척 중에서 어린이 발달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 분에게 나를 보여 드렸답니다.

그 분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더니 "말은 할 수 있겠다."라고 판정을 하셔서 그제야 안심을 하셨다더군요.

대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뽕구'였습니다.

내 후배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저 형은 입만 뽕끗하면 구라야."라는 뜻에서 뽕구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뭐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빨이 썩다는 뜻이었지요.

말하자면 후배 녀석들이 내 '구라빨'에 감동해 그런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말을 늦게 시작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부지런히 구라빨을 연마했나 봅니다.

하여튼 그때의 나는 어느 면에서든 뛰어나 보이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잡기도 하나 능통한 게 없었습니다.

구슬치기나 딱지도 별로였고, 제기차기도 잘 못했습니다.

장기나 바둑 같은 잡기도 깜깜절벽이었습니다.

아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화투였습니다.

화투는 민화투, 육백, 섯다, 도리짓고땡 등 다양한 종목에 능했습니다.

(그때는 고스톱이란 게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그 분의 영향을 받은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실직상태에 있으셨던 아버님이 늘 화투로 점을 치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절로 배우는 효과가 생긴 거죠.

또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행가에 정통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집이 라디오 수리점인데, 손님을 끌기 위해 종일 라디오를 폴폴륨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유행가를 듣고, 책 읽으면서도 유행가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늘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다녔습니다.

어린 녀석이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다니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난 어릴 때부터 클래식 듣고 자란 사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고상한 건 아니니까요.

국민학교 입학 당시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도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고, 부모님도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고 몇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유치원 졸업생들과의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늘 나와 함께 100점을 맞는 라이벌이 둘 있었는데, 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할 때가 많았습니다.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인자하신 분이래 날 귀여워해 주셨지만, 1등으로 대접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구태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학년 8반에서 2학년 5반으로 진급한 것을 보면 그 분이 매긴 내 등수가 꽤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위 학년으로 올라갈 때 어느 반으로 가느냐를 보고 반에서 몇 등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만약 나를 1등으로 매겨주셨다면 2학년 8반으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은 남자분이셨는데, 나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제 안 해왔다고 매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꾸중도 듣는 등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 크지만 그 선생님은 어쩐지 나에게 냉정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출한 재주도 없는 놈이 선생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니 막장 길로 들어서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막장 길에서 빠져나올 찬스를 잡게 된 것입니다.

♪♪♪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꿀 전기는 갑작스런 담임선생님의 교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2학년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나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던 그 선생님이 떠나고 새 선생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 성함을 아버님께 말씀드리자 종씨라며 반가워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지만 그 선생님과 아버님 함자는 중간 한 글자만 틀렸습니다.

즉 아저씨뻘 되는 분이셨던 거지요.

그 선생님은 나를 무척 귀여워 해주셨습니다.

아마 종씨라는 점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치마 바람이라고는 그 흉내도 내지 못하는 우리 집이었지만, 그 선생님 덕분에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성적이 네 번 집계 되었는데, 네 번 다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았습니다.

'우' 하나도 없이 말이지요.

그야말로 나를 화끈하게 밀어주신 셈이지요.

숙모님도 국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내 성적표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군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구요.

자신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모든 과목 수를 주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그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신 겁니다.

내가 1학년 때보다 특별히 더 노력한 것도 없는데요.

하여튼 이때를 계기로 공부에 자신이 붙게 되었습니다.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그 선생님은 내 공부 인생의 첫 은인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2학년 때에도 1학년 때처럼 시험을 잘 쳤는데도 성적은 나쁜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나는 2학년 5반에서 3학년 5반, 4학년 5반, 5학년 5반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2, 3, 4 학년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3학년과 4학년 때의 담임선생님도 나를 매우 귀여워 해 주셨습니다.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호랑이같이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분의 재미있는 점은 치마 바람 일으키는 가정의 자제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애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너희 어머니께서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데 넌 이 모양이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더 아프게 때리셨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 모른 채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그 분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어렸지만 그런 눈치는 뻔했고, 그와 같은 공정한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과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그 분 덕분에 내가 이미 그때 KBS 라디오 스타가 되었

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TV가 없고 라디오가 득세하던 시절입니다.)

뭐 중뿔난 스타는 아니고 라디오에 매주 고정적으로 출연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학교방송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 국어 과목 지도교사로 출연하고 우리 반에서 몇 명을 뽑아 고정 출연시켰습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던 겁니다.

어떤 때는 일요일에 가서 미리 녹음하고, 어떤 때는 월요일에 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가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힘든 때였는데, KBS 로고를 붙인 세단이 우리를 데리러 학교 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무슨 차인가 눈이 휘둥그레 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딱하니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우쭐한 기분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그 길로 계속 나섰다면 허참이나 손석희 못지않은 MC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4학년 때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내 스타 생활도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프로그램에서 내 역할이 주역 중 주역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출연했을 때는 나에게 배정된 대사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건 뽕이야"라고 소리치자 내가 "뽕이 뭐니?"라고 묻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습니다.

단역 중 단역이었던 것이지요.

차츰 연륜이 쌓여 가면서 내 역할이 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4학년 때의 여자 선생님도 나를 끔찍하게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라고 하시며 껴안아 주실 때도 있었지요.

마침 4학년 때 만난 여학생 얘기를 해보기로 하지요.

4학년 5반 교실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100명의 학생 중 딱 한 사람의 여학생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여학생만 보이는 것 같더군요.

예쁘기도 했지만, 입고 있는 옷이 날아갈듯 화려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하늘색 원피스였던 것 같은데, 정말로 눈부시게 예뻐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부도 잘해 우리 반 부반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친하게 지낼 기회는 없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그대로 날려 버렸지요.

그 기회란 내가 학급회의 의장으로 뽑히고 그 여학생이 부의장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 반장은 조금 우악스러운 데가 있어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급회의 의장을 뽑을 때는 대개 반장이 뽑히는데, 여학생들이 반란표를 나에게 던져 내가 당선된 것입니다.

나는 암전해서 여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남학생들은 대개 반장에게 표를 던졌는데, 여학생들이 톡톡 뭉쳐 나를 뽑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체구도 작고 수줍기도 해서 그런 일 잘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뽑혔으니 어떡합니까?

그 여학생과 나란히 단상에 앉아 사회를 보긴 했지만 인상에 남을 만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멋지게 사회를 보았다면 그 여학생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 여학생이 날 싫어하지는 않았다는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하루는 내 친구들이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학생과 친구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녀석 서너 명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야, 너희들 뭐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입 닥치고 따라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한참 따라가 보았더니 이윽고 그 여학생 집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집으로 들어가자 남자 녀석들이 길가의 연탄재를 집어 들어 대문에 폭탄세례를 퍼붓고 도망쳤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들에 대한 호감을 바보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나 봅니다.

나는 연탄재를 던지는 데 가담하지 않았지만, 따라갔기 때문에 공범 중 한 명임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여학생 모친이 담임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 반에서 실력자였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 분이 왜 왔는지 짐작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씀을 끝내시고 담임선생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몇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들에게 몽둥이세례를 퍼부었는데, 천우신조로 나는 빠졌습니다.

그 여학생이 내 이름은 빼고 어머님께 일렀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그 여학생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구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 뒤로는 두 사람의 행로가 한 번도 교차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기여중고를 거쳐 서울 미대로 진학해서 그리 먼 행로를 간 것도 아니지만 그 뒤로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습니다.

5반의 행렬은 5학년에서 끝나고 6학년에는 6반으로 진급합니다.

여기에는 내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 드리지요.

♫♫♫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일본군 오장(우리로 치면 병장에 해당하는 것 같음) 출신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으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좀 드신 편이었는데, 부드러움이나 유머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혼날 짓을 하면 단체기합이라 해서 그 분단 전체에 대해 지도로 머리를 때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벽에다 거는 큰 지도를 둘둘 말면 좋은 몽둥이가 되지요. 그것으로 한 분단 전체에 군밤을 매기셨습니다.)

단체기합이라는 것도 일본군의 전통을 따랐는지 모르지요.

어쩌다 나는 5학년 때 난생 처음 부반장에 뽑혔습니다.

반장은 고대 교수 출신으로 후에 교육부장관 되신 분의 자제였는데, 그 친구는 정말 사내다운 풍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 친구를 몹시 편애하셨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반 반장은 100점이야. 그런데 부반장은 0점이란 말이야."

사실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패기라곤 하나도 없었으니 일본군 오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은 줄기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어린이에게는 따뜻한 격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억박지르기만 한다고 나아질 턱이 없었습니다.

은사님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부분은 그 분이 가난한 집 아이들을 경멸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어떤 애가 떠들다 걸려 일으켜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 분은 그 애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에 사니?"

주눅이 든 학생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명륜동 3가 살지?"

그 학생이 모기만한 소리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럴 줄 알았어. 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명륜동 3가가 빈촌이라는 걸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분은 "네가 그런 데 사는 사람이니 그런 행동이나 하지"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렸어 하지만 그런 말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나는 공부할 의욕을 잃고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해 4월에는 4월 혁명이 일어나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불타는 연기가 보이고 총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중에 가보니 우리 집에서 한 3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종로경찰서 앞 담벽이 온통 총알 자국 투성이였습니다.
학생 데모대를 향해 경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이였습니다.
내 친구는 당시 부통령이며 실력자였던 이기붕 씨 집을 습격해 흠뻑했다는 훈장을 자랑스럽게 흔들고 다녔습니다.
난 세상이 어차피 혼란해질 테니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4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학교에 단 한 번 찾아오시지 않으셨지만 담임선생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학년 때는 늘 담임선생님의 차가운 시선만 느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니 공부에 의욕이 날 리 없었습니다.

5학년 5반에서 6학년 6반으로 올라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비록 개기기는 했어도 6학년 5반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곧 1등을 하지는 못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늘 1등을 한 다른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몇 사람이 었치락뒤치락했지만 평균적으로는 내가 제일 잘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다른 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2등으로 취급되어 6반으로 진급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운 중의 하나로 판명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는 김정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처음 쓴 책, 즉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의 서문에 감사를 드린 은사가 바로 그 분입니다.

만약 내가 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경기중학교에는 이력저력 합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적당히 공부해 서울대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교수는 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나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구나라는 의식이 처음 싹트다면,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6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그 김 선생님이 내 마음 속에 그런 믿음을 심어주신 장본인이셨던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찾아왔던 몇 번의 행운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행운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 행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늘 싸늘한 시선을 보내시던 5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은인 중의 하나
일 수 있습니다.
날 1등으로 만들어 6학년 5반으로 보내셨다면 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이상하게 운명론에 끌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인연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6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오늘날의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6학년으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6학년 6반의 새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을 만난 지 사나흘이 지나자 곧 입시대비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 날부터 매일 과목을 바꿔가며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약간 뚱뚱하신 체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봐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김정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한문은 너무 어려워 받아쓰기가 힘들었습니다.
6학년 학생에게 술을 뜻하는 '鼎'자는 너무 어려웠던 거지요.

어느 날 채점된 시험지를 돌려주시던 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러 다가가자 대뜸 "너 몇 반에서 왔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너 5학년 때 몇 등 하고 6학년으로 진학했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험을 꽤 잘 쳤는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모양이었습니다.

"5반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다짐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인자한 말씀에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이 쓰다듬어 주신 머리에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5학년 내내 담임선생님의 화난 듯한 표정만 봐 오다가 김 선생님의 미소편 얼굴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날부터 열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이 한, 두 번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이 붙어갔습니다.
채점이 끝나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언제나 내가 1등이었습니다.
취약한 과목도 없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거의 매일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2등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시험 준비를 했으니까요.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셔야 겨우 공부를 했는데, 이젠 달라졌습
니다.
(어머니는 워낙 순하셔서 공부 하라는 말씀도 잘 하시지 않았습니다.)
6학년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공부하라는 말씀 하지 않으셔도 내가 스스로 했습니다.
아마 좋은 성적에 스스로 도취했나 봅니다.

나는 지금 수학을 싫어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6학년 때 내가 가장 좋았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좋았습니다.
하루는 시험 채점이 끝나자 담임선생님께서 "90점 이상은 없지?"라고 당연한 듯 물으셨습니다.
(정말이지 시험 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처음이다."라고 신음하며 풀었습니다.)

내 시험을 채점한 친구가 "여기 93점이 있는데요."라고 소리치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정말
이냐고 확인하시더군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6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모여 이번에는 정말로 어렵게 내서 학생들을 혼내
주자고 담합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90점 장벽을 넘겨 선생님께 놀라움을 드린 거지요.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조금 쑥스럽네요.
그러나 말이 나온 김에 화끈하게 자화자찬을 해보려 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시험 시간을 모두 다 쓰지 않았습니다.
약 반 정도의 시간이면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 눈치를 채신 담임선생님은 나더러 "다 끝났니?"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드리면 "너 심부름 좀 갔다 와라."하시면서 교무실도 보내고 우체국도 보냅니
다.
다른 애들 아직도 킁킁대며 문제를 푸는데, 나는 교실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분 심부름을 도맡아 했는데, 그 중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반 실력자 가정에서 매일 오후 보온병에 든 커피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 보온병에는 선생님 혼자 마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남은 커피를 다른 반 선생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은 당연히 그 커피를 가져온 가정의 아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고 늘 나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초딩에게 선생님 심부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백인지 잘 아시지요?

그 분은 나에게 더블백을 선물하셨던 거지요.

그 해 5월에 군사쿠테타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 6학년생에게 청천벽력 같은 입시체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시 총점의 1/5을 체력장으로 카운트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보기에 애들이 너무 비리비리하니 국방이나 제대로 하겠나 - 이런 생각에서 체력장을 입시과목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체력장은 달리기, 턱걸이, 오른손, 왼손 던지기, 넓이뛰기 다섯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 같은 약골은 큰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체력장을 1/5이나 반영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군사정권은 생색을 내며 1/7로 낮춰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시에서는 총점의 1/7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고입, 대입에서도 체력장이 똑같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집 형은 서울 공대를 지망했는데 턱걸이를 잘 못해 늘 수험에 싸여 지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턱걸이는 하는 모습이 희극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생각나는 대로 그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도입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반 2등을 하던 친구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는 25점 만점에 고작 10점 정도를 얻었습니다.

체력장에서만 15점이나 깎이니 경기중학교는 위험했습니다.

나와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결국 경북중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거기 지원한 날 밤에 하도 울어서 그 다음 날 학교에 왔는데 눈이 툭툭 부어 있더군요.

나는 공부하는 틈틈이 운동장에 나가 공을 던지고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팔에 힘이 없어 턱걸이는 영 늘지 않았습니다.

7개가 만점인데, 두 개 정도 하고서는 힘이 빠져 내려오곤 했습니다.

공부의 화신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나였지만 1/7이나 되는 체력장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내 졸업성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5학년 때까지는 전교 성적을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마다 다른 시험을 치니 전교 석차가 나을 수가 없었지요.

반 석차가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전교 석차가 나온 것은 6학년 때가 유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반이 똑같은 시험을 치니 전교 석차가 나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매일 시험이 끝나면 스타급 선수들의 성적이 집계됩니다.

(스타급 선수들이란 나중에 경기중학교에 진학하는 애들을 뜻하지요.)

그 집계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룹제로 지도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외란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 잘 몰랐지만, 아마 서울 장안에서 유명하다는 과외선생들이 모두 모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특A 학교 중의 하나인 혜화국민학교였으니 사교육 열풍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각 과외그룹 사이에서 경쟁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 과외그룹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상호비교를 위해 거기에 소속된 스타급 선수들의 성적을 집계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과외그룹이 작성한 집계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엔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나를 내가 과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성적이 입력되는 순간 자신들이 쪽 팔리는 처지가 되니 일부러 제외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살벌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서 40번에 걸쳐 배치고사를 실시했고 이것으로 졸업성적이 매겨졌습니다.
내가 수석을 차지했을 거라고 짐작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력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40번의 필답고사 성적은 당연히 내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평균 95점이었는데, 2등은 92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 한 번을 더 봐도 따라올 수 없는 차이였던 거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친구는 힘도 들이지 않고 체력장 만점을 받는 강골이었습니다.
(경기중학교에 불합격하고 동성중학교 갔는데, 거기서 핸드볼 주전선수로 활약했지요.)
체력장 점수를 합치고 나니 그 친구가 93점, 내가 92.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졸업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비록 수석을 하지 못했지만, 공부에 관한 한 어느 누구와 붙어도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이 그 후의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중학교에 들어가 개길 때도 바로 그 자신감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의 배후에는 나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김정한 선생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재미없게스리 공부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난지 부산에서 트렁크 달랑 두 개 갖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지요?
어떻게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우리가 살아남은 내막을 자세히 모릅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쭙 보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얘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길래 일부러 그런 주제를 피하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내가 경험한 바에 따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진동과 성북동 셋집 시절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았는지 깜깜절벽입니다.
내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명륜동 3가로 이사온 후부터입니다.

명륜동으로 이사 오면서 어머니가 조산원 개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조산원이 무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즉 조산원이란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뜻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회 명사의 집안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분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대 간호학과와 전신인 세브란스 간호전문학교 출신입니다.
(예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학교가 통합을 할 때 세브란스 출신이 거세게 반대를 했다는군요. 하향평준화된다고요. 그만큼 세브란스 학교의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과 더불어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가정에 파묻혀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실직 상태에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산원 개업을 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의료 력이 부족해 약간의 트레이닝만 거치면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조산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조산원으로서의 수입은 그야말로 들쭉날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를 10명 정도 받으면 우리 살림은 제법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셨지요.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부르면 무조건 뛰어가야 하니까요.
밤 두, 세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 뛰쳐나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즘처럼 출산율이 낮았다면 우리는 굶어죽어 버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빚을 내서 쓰지는 않는다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 덕분에 우리 집은 빚 독촉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빚은 절대로 얻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살았어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돈이 떨어질 만하면 일이 생겼던 거지요.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 아이 태어난다고 부름을 받으면 어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구를 들고 뛰어 나가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는 막내여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떨어져 고민하는 기색이 보이면 용돈 달라고 조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눈치가 발달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어머니 주머니는 곧 빈털털이가 될 것 같은데도 다시 채워지곤 했습니다.

나의 낙천성이 바로 이런 경험에 그 뿌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머니가 학교 찾아가시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촌지는커녕 입고 가실 옷이 없어서도 못 가실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행운아라고 느끼는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그런 데 개의치 않고 나를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혜화국민학교에도 극성스런 학부모들이 많았고, 자칫하면 교사들이 그런 데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도 말입니다.

내 기억에 그때의 선생님들 중에는 정의감이 강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학년 때가 예외적 상황일 것 같은데, 그때의 경험은 나에게 일종의 독기 같은 것을 심어줬습니다.

"1등을 하더라도 차이가 작으면 바로 뒤집힌다."

"등수가 뒤집히는 비극을 피하려면 큰 차이로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독기 말입니다.

어린 녀석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지기 싫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부잣집 친구가 부러운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원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 애들은 영양을 잘 섭취해서 그런지 힘도 셧습니다.

허약했던 나는 가끔 그 애들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던 유일한 수단은 공부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비싼 돈 내며 사교육을 하는데 내가 단기필마로 그들을 꺾을 때의 쾌감은 두 배가 되더군요.

부잣집이라고 으스대다가도 공부 얘기만 나오면 쥐죽은듯 움츠러드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말에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열 살 정도의 어린애가 어찌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림에 쪼들려 늘 지쳐 있던 부모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100점을 맞아 집으로 달려가면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하자면 효도를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토록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버님이 운 좋게 취직을 하셨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살림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일을 하시기 시작한 아버님은 열심히 저축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큰돈을 벌었다고 자부하시던 아버님이 거의 10년 동안의 실직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버님은 다시는 가난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의로 열심히 일하시고 저축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불광동에 우리 집을 하나 사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셋집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우리 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집 살림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경제학과에서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고, 유학 가서는 엄청난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테지만, Princeton에서 full scholarship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어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곧 가난한 여건에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회고해 보면 우리 집 살림은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나의 낙천성과 어떤 관련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나에게는 행운이 많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볼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의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사정을 모르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신도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페니니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성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입니다.

유태인을 가장 경멸하는 것이 성공한 유태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평계 대지 마라. 너희들이 가난한 것은 게으른 탓이다."라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동안 자수성가한 명사들을 많이 보고 사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인식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데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노력했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노력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수성가 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남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업수이 볼 일도 아닙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보수적 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도 어릴 때의 내 경험과 밀접하게 끈닿아 있습니다.

촌지수수 관행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생각을 갖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가난한 집 자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대로 공부하고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내 꿈입니다.

우리 동료 경제학자들은 입만 열면 경쟁력을 부르짖습니다.

그런 생각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생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이것이 교육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어릴 때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구태여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이런 내 신념을 밝힐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2. 중학교 시절

내 짧은 전성기는 경기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저마다 1, 2등을 다투던 친구들이 모인 데서 국민학교 때처럼 독주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이 엄청난 판에서 중간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 녀석들 중 만만하게 보이는 녀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경기중학교 학생이라고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대략 상, 중, 하의 세 그룹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이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3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늘 거기서 맴돌았던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어떻게 경기중학교 입시를 통과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의 양상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치른 첫 시험에서 (반) 1등을 한 것은 행운이자 불운이었습니다.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위 1/3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졸업 때까지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1등을 한 게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1등을 한 탓에 중학교 생활이 내내 힘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불운이었습니다. 정말로 힘에 겹쳐 1등을 했는데, 아버님은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혜화국민학교와 경기중학교에서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아버님은 비슷하다는 착각을 하신 겁니다. "노력만 하면 이 높은 경기중학교에서도 통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 드렸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게 만든 것은 내 중학교 생활을 두고두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버님의 욕심은 끝이 없으셨습니다. 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때는 그 기대가 정말로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2등이라고 써진 성적표만 보셔도 미간이 찌푸려지십니다. 경기중학교에서 2등을 하는 것만도 얼마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 1등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겠지요.

그러나 나는 첫 시험에서 운 좋게 1등을 차지한 후 중학교 내내 1등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매번 아버님의 쩡그린 표정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 시험에서 마음먹고 개겨야 했었다고 속으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 내 중학교 생활이 그리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늘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왜 그리 하기가 싫던지요. 국민학교 6학년 때의 그 불타던 투지는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는 공부하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듯, 1학년 때는 국민학교 때의 내공 덕에 그런대로 버텨 나갔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민약골' 취급을 받던 나였습니다.
나보다도 키가 작았던 친구가 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입시 체력장에서 대폭 점수를 깎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턱걸이 7번이 만점이었는데, 입시 때 온갖 사기술을 동원했는데도 간신히 4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중학교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심풀이로 철봉에 매달려 봤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에는 그 지긋지긋한 턱걸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철봉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
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별로 힘도 들이지 않았는데 턱걸이 스무 번이 거뜬한 거였습니다.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스무 번을 채우고 내려 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나는 더 이상 약골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 검진을 했더니 의사 분이 내가 어렸을 때 가벼운 결핵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라고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기침을 많이 하는 걸 보시고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배 속을 파내고 거기에 꿀을 채운 다음 익혀서 먹이면 기침에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꿀을 살 돈도 배를 살 돈도 없었기에 그 편지는 그냥 무시되고 말았지만요.

그리고 그때는 몸이 나른할 때가 많고 안색이 창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즈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결핵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내 친구들 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잘 먹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이지요.

국민학교 6학년 즈음에 결핵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 중학교 들어오면서 건강을 완전하게
되찾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를 되돌아보면 그래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 후의 내 인생에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 덕을 많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에서의 경쟁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지만 공부는 국민학교 6학년 때의 정점에서 서서히 하강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

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급기야 바닥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개졌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2학년이 되면서 같이 노는 친구들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해화국민학교 출신인데, 노는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요.

집이 비슷한 부근에 있어서 학교에서 함께 돌아와서는 각자 책가방을 집에다 던져 놓고는 그 길로 놀기 위해 모입니다.

매일의 일과가 그랬습니다.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 중 1년 후 고등학교 입시에 제대로 붙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떨어져 재수해서 다음 해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년 후배로 졸업했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 이상해졌지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각자의 동창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말을 놓을 수도 높일 수도 없어 곤란한 거죠.

마침 사춘기가 시작되어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녀석들이 별짓을 다하고 놀았습니다.

누가 플레이보이 잡지나 고급소총 책 얻어 오면 눈이 빠져라 탐독했습니다.

우리 때는 방인근이 지은 고급소총이란 책이 음란서적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방인근이 지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야동이 있었으면 그걸 봤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문명의 혜택이 없어 음란서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보았다면 전교 1등도 문제없을 터였습니다.

내 친구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집에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우린 2층 집에 올라가 지나가는 여학생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우리가 훑쳐보는지도 모르고 무표정하게 우리 앞을 지나칩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뭐가 그리 좋은지 킬킬거리면서 마루에 나뒹굽니다.

2층 창가에 모여 서서 하루 종일 예쁜 여학생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앨범을 꺼내 보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애 요즈음 많이 예뻐졌더라."

"예쁘긴 뭐, 여전하던데."

"개 요즈음 상진이라고 사귄대더라."

대충 이런 시시한 얘기로 귀중한 시간을 마음껏 썼습니다.

하여튼 공부 빼놓고는 모든 게 즐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간이 부어 수업 시간에도 짹짹(동전 따먹기)을 할 정도까지 타락했습니다.

물론 보통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시선이 두려워 못했지요.

선생님이 피아노에 파묻혀 있는 음악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난 아직도 "Last Rose of Summer"라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걸 배울 때 짹짹이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배울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죠.

"한 송이 장미꽃이 외로이도 피었네."로 시작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방탕했던 그 시절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방탕한 생활의 결과는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여름 방학 성적표에서 4등이란 석차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불벼락을 내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 들고 온 날 우리 학교의 중요한 야구시합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우리 학교 야구가 전국 정상권에 있을 때라 구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나중에 혼날 것이 뻔했지만 그래도 그 중요한 시합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문 옆에 낫선 야구 배트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야구 배트가 없었기에 문득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아버님이 날 응징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 아닐까?"

불행히도 그 예감은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노한 표정의 아버님이 나오시더니 대뜸 그 배트를 집어 드셨습니다.

"너 이걸로 맞을래. 아니면 집에서 나갈래?"

아버님은 나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셨습니다.

그걸로 맞으면 다리뼈가 부러질 것 같고, 나가자니 무일푼이라 어디서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만류하면서 나에게 소리 치셨습니다.

"얘야, 잠시 몸을 피해라. 남대문 숙부 댁에 가서 며칠 지내고 와라."

나는 그 길로 숙부님 댁으로 도망쳤습니다.

숙모님께 사정을 말씀 드리고 며칠 동안 거기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국민학교 교사이셨던 숙모님은 껄껄 웃으시더니 "네 마음대로 여기서 살아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마 숙모님은 마음 속으로 아버님을 비웃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경기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거기서 4등을 했다고 쫓아내다니. 이견 말도 안 돼."

그래서 깔깔 웃으시면서 나를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부터 내 나이 또래의 사춘들과 신나는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화투 치고, 공놀이 하고, 군것질 하고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숙부님 댁은 우리보다 부유해 반찬도 아주 호화로웠으니 금상첨화였습니다.
 노는 데 바빠 집 생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누나가 특사로 파견되어 이제 아버님이 용서하셨으니 집에 돌아와도 좋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집으로 기어들어가 납죽 엎드려 그 해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굴욕적인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를 내쫓은 것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적 나쁜 것을 핑계 삼아 단단히 군기를 잡아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당시 사춘기에 있던 나는 매사에 부모님께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늘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어서 얼굴을 피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도 그 기회에 "이 놈을 단단히 길들여 놓자."고 굳은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쫓겨나야 마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탕한 생활은 2학년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반성의 계기를 잡지 못했으니깐요.
 내 인생 전체에서 한 멍청한 짓의 반 정도를 그 한 해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미련한 짓을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던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짓을 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방탕한 생활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3학년 올라가자마자 치른 제1회 모의고사였습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도대체 자신이 있는 과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른 시험이니 결과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전교 59등이란 비참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넘어갔어도 아버님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 입시 준비에 관한 사항을 의논해야 한다며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데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한 학년이 7반이니 전교 59등이면 반 9등 정도였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 4등이라고 집에서 쫓아낸 바 있는데, 어쨌든 이 놈이 9등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버님 화 나시면 아예 말도 안하시고 날 쳐다보시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며칠인가 그런 굴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학년 때의 낭만적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발하겠다고 특별히 결심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모의고사가 거듭될수록 성적은 점차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대체로 네 번째 시험부터 전교 10위권 이내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전교 10위권 안에 머물긴 했지만 1등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로 올라간 게 3등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10번에 걸친 모의고사의 통산 성적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5위 내외였을 걸로 짐작합니다.

모의고사와 별도로 공식적인 석차는 학과 성적에 의해 매겨졌습니다.
그것도 대략 전교 5위 내외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학기말 시험에서의 해프닝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10위 정도로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이젠 모두 다 지나간 일이지만 하도 억울해 그 해프닝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산도 독립된 과목으로 국, 영, 수와 마찬가지로 100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주산 4급을 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말 시험에 60%는 그냥 덧셈이 나왔고, 나머지 40%는 원(W) 단위가 붙은 덧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덧셈의 답만으로도만 따지면 다 맞았기 때문에 100점을 맞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폭탄선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원 단위 안 붙인 녀석들이 많은데 모두 오답 처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들이 울고 불며 봐달라고 사정해도 단호하게 “No”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 정말로 40점을 감점했더군요.
졸업을 며칠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졸지에 평균 3점을 깎았으니 상위권 도약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하기야 그걸 100점 맞았어도 수석 졸업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껏해야 전교 3, 4등 정도였을 걸로 짐작합니다.
뭐 3등이나 10등이나 거기가 거기니 흥분할 필요는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의 불공정한 평가 방식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요즘음 채점이나 학점과 관련해 공정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 단위를 붙이지 않은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40점 모두를 깎는 것은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절도죄를 사형으로 다스린 셈이지요.

원 단위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10점 정도의 감점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주산의 본질은 덧셈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 단위 붙이고 안 붙이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지요.

나는 그때 그 선생님이 왜 그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셨는지 아직도 그 답을 모릅니다.

원칙을 중시한 나머지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유독 원칙에 충실한 행동을 하셨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다른 동기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즉 학생들 분포를 보고 특정 학생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소한 잘못에 몽둥이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성에 대한 나의 인식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졸업식은 수석을 차지한 홍석현 군(현 중앙일보 회장)의 독무대였습니다.

전직 장관이신 그의 부친은 학부모를 대표해 학교에 대한 감사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욕심 많으신 아버님이 그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으실 리 만무했습니다.

졸업장 이외에는 달랑 3년 개근상 하나 받아들고 나오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나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뜻하지 않게 폭탄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선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님은 피식 웃으셨습니다.

"야, 입마. 웃기지 마라."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진 냉소였을 겁니다.

사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럴 자신도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용으로 한 번 던져본 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가 전교 1등을 차지한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질없이 던진 한 마디 말이 씨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기중학교에 입학한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아버님과 삼청공원에 놀러 갔다 오는 길에 어느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문에 마름모꼴 학교상징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엄지손가락을 올리시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란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이 중학교 올 테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경기중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 채 해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몇 년 후 정말로 그 대문을 통해 경기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 상대도 마찬가지로 경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사기 위해 어머님과 함께 장위동 부근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 한 모퉁이에서 허름한 교사와 허름한 대문을 가진 한 대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까?

당시에는 법대를 지망하고 있었는데, 그 팻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해에는 정말로 그 대문을 지나 서울 상대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을 차지하겠다고 큰소리 친 나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그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3.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가 같은 교정을 쓰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또 시험을 쳐야 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동일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입시에 졸업생 거의 반 정도가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420명이 졸업했는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떨어진 거지요.

큰 시험에 유난히 취약한 나인지라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합격한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경험한 제일 큰 변화는 소위 클럽(club)이라는 과외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진 것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저 공부하고 애들하고 어울려 시시하게 노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였지만 사소한 접촉마저 불가능한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가만히 보니 웬만한 애들은 이런저런 클럽에 다 가입되어 끼리끼리 놀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 대열에서 빠져 외톨이로 지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클럽은 다른 게 아니고 '영어회화 클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영어로 토론하고 오락도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 지내고 배경이 좋은 애들은 모두 Oak란 클럽에 들어가 있더군요.

나처럼 소외된 사람에게는 거기 같이 가자는 제의 하나 들어오지 않더군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지만 소위 엘리트 그룹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 같은 듣보잡은 그 대열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거지요.

그 다음 그룹은 기독교 계통인 HSCC라는 클럽에 모여 있더군요.

외국인 선교사가 지도해 주기 때문에 영어 배우는 데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회원으로 있던 내 1년 선배가 바로 한덕수 주미대사입니다.

거기 한 번 놀러가 봤더니 그때도 영어를 아주 잘 하시더군요.

하여튼 웬만한 애들은 모두 Oak와 HSCC에 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다른 클럽이 세 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이미 진용이 갖춰져 있더군요.

그 중 Sun이란 신생 클럽이 있었는데 조금 친한 친구가 거기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쪽 팔리는 것을 무릅쓰고 그 친구를 찾아가 거기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열린 마음의 소유자여서 흔쾌히 승락을 하더군요.

그 친구를 따라 가본 첫 번째 미팅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과 숙명여고생으로 구성된 클럽이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가 되어야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나 걱정이 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겁먹어서 그렇게 느꼈던 거였습니다.)

물론 난생 처음 여학생과 만나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은 먼발치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때의 클럽 활동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영어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나도 한때 영어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도 경제학 몰라서 고생은 했을지언정 영어가 떨어져서 고생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나는 영어 실력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 영어 실력의 기초를 닦은 것이 바로 클럽활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클럽활동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물론 중학교 때에도 사람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클럽에 다니면서 그 울렁증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회장직을 맡으면서 리더십에도 서서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적 성숙에 많은 도움을 얻은 셈입니다.

클럽 활동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회화 클럽이니 당연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왕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영어를 잘해야 잘 보일 수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님이 무서워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절실한 이유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거지요.

매주 한 번씩 모임 때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해 거기에 대해 영어로 토론을 합니다.

난 그 모임이 있기 며칠 전부터 내가 할 얘기를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물론 영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1년 동안 52번이나 되는 영작 연습을 한 셈입니다.

A4 용지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영작을 매주 해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회장이 되었을 때는 회지 편집도 해야 했기 때문에 영작의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내 영어 실력은 부쩍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학년 때는 나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하는 친구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처럼 어학연수 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부유한 집안의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 같더군요.

나처럼 자수성가 스타일로 공부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어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하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보면 클럽활동을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유인(incentive)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클럽활동이 나에게 좋은 유인을 준 것이지요.

여학생들과 교우할 기회도 갖고 영어도 공부했으니 썩 먹고 알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

내가 Sun 클럽의 모임에 처음 참가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구적이며 이지적인 마스크의 소유자였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때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 분은 나를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떠날 때는 나더러 다음 주에도 꼭 나와야 한다고 몇 번씩이나 다짐했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뽀뽀하던 차에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뒤에도 그 분은 늘 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클럽 활동뿐 아니라 공부나 교우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제나 내 상담역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그 분의 광팬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내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나의 롤모델 겸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는 다른 중학교에서 들어온 사람들, 속칭 타교생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북중, 경남중, 부산중처럼 나름 지방의 명문으로 행세하는 학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 크게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중학교에서 홀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가 죽어 살기 일쑤였습니다.

목포중학교에서 홀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온 그 분도 역시 기가 죽어서 지낼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그런 분위기에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그 분의 집념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영어정해'라는 아주 두껍고 난이도가 높은 참고서가 있었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에 그 책을 송두리째 외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경제학과로 진학하게 된 데는 그 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 경제학과에 들어가 나를 이끌어준 셈이 되었으니까요.
4학년 때는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나중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나와 함께 학계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슬픔을 안겨 주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이계식 박사가 바로 그 분입니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의 지원 덕에 Sun 클럽에서의 나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받아주었던 친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가지 않아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 분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Sun 클럽에서 내 위상이 점차 높아져 감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수줍고 내성적이던 태도를 서서히 벗어던지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늘 쭈뼛거리던 내가 이제는 제법 열변을 토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2학기가 되자 우리 1학년 중에서 차기 회장을 뽑게 되었는데, 선배님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나를 밀어줬습니다.
물론 그 분도 나의 열렬한 지지자셨지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어떤 모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크게 출세해 보았자 절반장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 드렸듯, 국민학교 5학년 때 부반장 한 번 해본 것이 유일한 출세였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늘 담임선생님의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가 갑자기 클럽 회장이 되어 20여 명의 회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회장직을 하면서 크게 잘한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잘못된 일도 없이 무난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큰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Sun 클럽은 지명도가 떨어지는 군소 클럽이었기에, 회장인 나도 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의 정치세력권에서 나는 여전히 듣보잡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나도 하면 한다는 자신감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으니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었는데, 성적은 꽤찮은 편이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쓸모없는 짓을 하지는 않아 시간이 절약되었던 점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그런대로 수준을 유지하니 집에서도 내 클럽활동을 그리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클럽에서 여학생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대충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생활에 자유의 빛이 찾아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 성격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녀간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야 했던 우리에게 유일한 이성 자원의 공급처는 국민학교 동창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성이라고는 국민학교 동창생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성간의 사교행위가 일체 금지되었으니 새로 사람을 사귄 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창회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동창회를 열어 한 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 왔으니 그런 모임을 또 한 번 열자는 심산이었지요.
다른 학교에 진학한 동성 친구를 만난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솔직히 말해 이성 친구를 보고 싶다는 엉큼한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의 내가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학교 정치세력권에서의 내 존재는 정말로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가 열려도 국민학교 때 주름 잡던 친구가 주역을 담당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열린 동창회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열린 동창회에서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끝 무렵에 회장을 선출했는데 여성 회원의 압도적 지지로 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주역이라고 생각해 왔던 내 친구들이 의외의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군요. 그러나 이미 난 옛날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쭉뚝대기는커녕 객기까지 부릴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친구에게 주눅이 들어 살았지만, 이젠 나도 그들과 대등하다는 생각이 차츰 들더군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비록 시시한 감투이긴 하지만, Sun 클럽 회장직과 혜화국민학교 동창회장직이 나에게 도전정신을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부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느꼈던 나였지만 이제는 무슨 일이든 해볼 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내 멘토가 되어주신 이계식 박사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국민학교 6학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고마우신 은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난 게 나로서는 그만큼 큰 행운이었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그런 뜻하지 않은 행운을 또 한 차례 만납니다. 바로 이 두 차례의 행운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의 나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결정적으로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만약 공부에 대해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면 교수 이외의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어 고시를 친다든가 회사를 들어간다든가 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더 출세했을지 몰라도 하여튼 교수로서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2학년이 시작되자마자 반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어제 말씀 드린 대로 1학년 때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아직 내 친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부반장으로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득표 3위가 차지하는 대의원직을 얻었습니다. 그나마 나로서는 생전 처음 얻는 최고의 감투였기에 내심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반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뽑힌 반장, 부반장이 학교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는 반장, 부반장이 되려면 평균 성적이 80점을 넘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두 친구들이 모두 이 규정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 때는 성적이 아주 쫓기 때문에 80점 넘는 사람이 한 반에 다섯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의 그 다섯 명중에는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표가 나에게로 몰렸던 거지요.
영접결에 난생 처음 반장에 뽑혔는데, 내가 말하는 큰 행운이란 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깟 반장으로 뽑힌 게 무슨 큰 행운이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큰 행운이었습니다.
반장으로 뽑히면서 1학기에 진교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하던 성적이었지만 여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장을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장으로 뽑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좋은 성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나는 음악, 미술, 체육이 짝이었습니다.
피아노는 쳐본 적도 없어 청음시험을 치면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아노 기초가 있는 사람은 청음시험이 문제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미술도 뭐 배우고 해본 게 있어야지 잘 그럴 거 아닙니까?
운동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체육시험도 늘 바닥이었구요.

우리 때는 음악, 미술, 체육이 각 100점씩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과목을 모두 70점 정도 맞으면 다른 학과 아무리 잘해도 평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시험이 없는 중간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 과목이 반영되는 학기말이 되면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중,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불문을 같은 게 있습니다.
즉 반장의 경우에는 수고의 대가로 음악, 미술, 체육을 최소한 89점 이상 주는 관행이었습니다.
2학년 때 반장이 되면서 드디어 나도 그 관행의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받으니 학기말에 성적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하, 중학교 때 수석도 바로 이 과정에서 태어난 거구나!"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체능 세 과목 89점 맞아 수석을 차지할 수 있다면 반장치고 수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학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명륜동 3가 집을 떠나 불광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명륜동 집은 상가 한 가운데 있어서 소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옆 집 라디오 수리점은 하루 종일 라디오를 풀볼륨으로 틀어놓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용케 그런 분위기에서 경기중학교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광동의 새 집은 주택가와 농지 사이에 있어 조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개구리, 두꺼비 소리가 여간 시끄럽지 않은 목가적 환경이었습니다.

내 기억에 2학년이 되어 특히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어도 조용한 환경에서 하니 능률이 크게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내가 수석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 수석 자리지만, 한 번 차지하고 나니 간이 붓더군요.

까짓것 나라고 못할소나라는 오기가 솟더군요.

그 뒤로 늘 나를 이끈 것은 바로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1등을 해도 다른 수많은 국민학교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 수석의 자리에 오르면서 비로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감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내 약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의 강점은 단순 암기입니다.

제자들이 잘 알지만, 내 기억력은 환갑이 지난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단순 암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수학 역시 고도의 암기과목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의 수학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복잡한 암기에는 별 재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학 같은 따분한 과목은 정말로 싫었습니다.

국어, 영어를 그리 못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암기 과목에 비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입시가 본고사로 국어, 영어, 수학에 선택과목 두 개가 더해져 5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 영, 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나머지 선택과목(일반사회, 독어)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국, 영, 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장이 되면서 어처구니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음악, 미술, 체육이 포함된 시험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시험에서는 마음이 느긋해지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으로만 승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난 지금 장교 대접을 받고 있는데, 계급장 모두 떼고 붙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2학기에도 계속 수석을 차지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3학년에 진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장으로서의 내 활동상은 어땠을까요?

나 스스로 놀랐지만, 나는 이미 준비된 반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반원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줄곧 반장을 해오던 애들에 비해 지지부진하게 굴지는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장 회의를 열어 학생지도의 기본 줄기를 잡았는데, 나는 그 회의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늘 반장을 해오던 애들이 "저 녀석은 어디서 굴러먹던 뽕다구냐?"라고 비웃었을 법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치 잡초와도 같은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영결결에 반장이 되었지만, 그리 부끄럽지는 않게 반장직을 수행했다는 게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자량이 너무 지나친 것 같네요.

내가 살아온 길을 있는 그대로 읊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 너그러운 이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우리 때는 지금처럼 미친 듯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시절이었지요.

(그렇다고 미친 듯이 공부한 요즈음 세대가 결코 똑똑한 것도 아니니 무얼 바라고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입시가 큰일인 줄 알면서도 고2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임전태세를 갖추지 않고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2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임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공부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에 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국어는 따로 공부해 보았자 성적이 쑥쑥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학은 공부하면 성적 오른다는 걸 잘 알지만 워낙 싫어하는 과목이라 별로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영어정해라는 참고서를 완독하고 그 다음 소머셋 모음이 쓴 *Summing Up* 이라는 수필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수필집을 읽기 시작했냐구요?

내가 존경하는 (1년) 선배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이 그 책 읽기를 권하더군요.

모의고사 문과 1등으로 법대 들어가신 분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그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3 초반까지 줄곧 그 책만 읽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련하게 사전 찾고 단어장 만들면서 그 책 읽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쓴 자서전인지라 읽기가 꽤 힘들었지만 4월쯤에 모두 읽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미련하게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3학년에 진학하고 드디어 첫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자신 없는 국어, 영어, 수학만 시험을 치니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국어나 사회 같은 암기과목이 웬만큼 끼어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말이죠.

나중에 성적이 나왔는데, 문과 2등이더군요.

그런데도 내심 무척 기뻐했습니다.

내가 2학년 때 수석으로 진급을 했지만, 그때는 암기과목이 주류를 이룬 데다가 음악, 미술, 체육에서 반장 프리미엄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계급장 모두 떼고 국, 영, 수만으로 붙었는데 그래도 문과 2등이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 시험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영어시험이 100문제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6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니 그야말로 번개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들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주고 명사형, 형용사형을 묻거나, 여성형 혹은 남성형을 묻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earl의 여성형을 쓰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기에 그냥 -ess를 붙여 earless라고 써서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countess가 정답이라는군요. earl이 count와 똑같은 백작을 뜻하니까 그렇다네요.)

무식한 것이었지만, 백지로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써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내가 69점으로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집중 투자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공영증(恐英症)이 사라지고 영어는 내 전략과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혐수증(嫌數症)이 내 지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드디어 문과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1등이란 자리는 다음 번 모의고사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지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운 좋게 그런 성적을 올렸지만 자신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달에도 또 1등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험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화자찬이 심할 것이므로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은 여기서 읽기를 마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왕 자랑을 한 김에 계속 읊조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문과에서 무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두 이과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너 문과냐 이과냐?"라는 질문에 이과라고 대답하면 "너같이 공부 못하는 녀석이 무슨 이과냐?"라고 구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1학기 때에는 문과, 이과 공통으로 똑같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문과와 이과가 1:1로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선택과목 두 개가 추가되니까 이젠 비교의 의미가 없어지지요.)

1학기 모의고사 성적의 통산 결과는 내가 문,이과 통합 챔피언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문과 선수들은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문과 2등이 이과에 가면 Best 10에 들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친한 친구 하나가 여름방학 끝나고 문과로 전과했는데, 이과 9등인가 차지한 사람이 문과에서는 바로 2등으로 올라가더군요.

내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한 비결은 국어와 영어에 있었습니다.

그 두 과목 성적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 잘 치는 달에는 2등과의 격차가 더 크고 잘못 보는 달에는 격차가 더 작아지는 구도였습니다.

국어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은 신문 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 실시된 다섯 번의 모의고사에서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사회와 독어의 두 선택과목을 포함시킨 후부터는 내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혹시 수학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나머지 네 과목에서 만회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총 10번의 모의고사에서 2등 한 번, 1등 아홉 번을 했으니 꽤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공포감으로 시작된 3학년 시절이 이렇게 화려하게 진행될 줄은 나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맹세코 진실을 말하건대, 잠을 매일 6시간 이상 잤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한다고 믿더군요.
그런 헛소문이 퍼져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사교육은 전혀 받지 않은 말 그대로의 자수성가형이었습니다.
그때도 일부 부유층 자제들은 사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내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교육 받은 사람이 전혀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경기고등학교 성적은 두 가지로 냅니다.
하나를 공식적인 성적인데, 전 과목의 시험으로 평균을 내어 학적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석 졸업생도 여기에 근거해서 선발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비공식적 성적인데, 바로 모의고사의 성적을 뜻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그냥 치고 나면 그만일 뿐이고 학적부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코앞에 닥쳐 있는지라 모든 사람이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비공식적 성적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Best 10에 들려고 모두가 안달을 하는 형국이었지요.
그렇다고 공식적인 학과시험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공식적 학과시험은 당연히 내 독무대였습니다.
암기과목들이 수없이 포진해 있는데다가 반장 프리미엄까지 있었잖나, 다른 사람들 여기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잖나 - 이러니 경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수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내가 자신도 없으면서 고등학교 때는 수석을 하겠다는 큰소리를 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 말이 실현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그 큰소리가 현실로 바뀐 것입니다.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지요.

졸업식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메달 네 개를 받아 목에 거니 주위에서 비난이 쏟아지더군요.
"저 자식 너무하는 거 아냐?"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친구들 사이에 '재수 없는 녀'으로 찍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즈음 애들을 키우고 보니 정말로 내가 학부모들에게도 '공적 1호'로 찍힐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없는 녀이라고 찍으면 찍히지요, 뭐.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로 한 바탕 휘저은 것 같아 내심 통쾌하기는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때 같은 전성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디다.
그러니 한때의 짧은 전성기를 맘껏 누리는 게 최고였지요.
하여튼 너무 내 자랑을 늘어놓고 나니 나 자신도 머리가 어지럽네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 또 다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언제나 화려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고, 그 때문에 내 진로가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고3때를 회고해 보겠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열린 대의원회에서 내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학생회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학생회에는 회장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사실 학생회를 대표하는 것은 회장입니다.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말하자면 의결기능의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회장과 의장은 늘 기득권층의 구성원이 독차지하는 자리였습니다.
매 학년 주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이 형성되고 거기서 누가 회장이 되고 의장이 될지를 합의 하면 대략 그 방향으로 결정 나는 게 관례였던 것입니다.
2학년 때 처음 반장이 된 내가 그 주류그룹의 일원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자리에 뽑히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류그룹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한 사람을 의장 후보로 내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막상 표결이 시작되자 종전에는 고분고분 3학년 말에 따르던 1, 2학년 대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그 표가 모두 나에게로 와서 나는 쉽게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1, 2학년 대의원들이 보기에는 주류그룹에서 소외되어 있는 내가 오히려 참신해 보였나 봅니다.
막상 내가 뽑히고 나니 내 3학년 동료들은 그야말로 경악한 표정을 짓더군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냈다는 식으로요.

보통 때 같으면 그저 감투나 쓰고 행세나 하면 되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난 운 나쁘게 아주 어려운 때 그 감투를 썼습니다.
그해 6월 총선거의 부정행위로 인해 학내외가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온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데모를 주동하기로 결정한 그룹이 학생회 측에 연석회의를 제의해 왔습니다.
함께 모여 데모 계획을 짜자는 것이었지요.

그 모임의 분위기는 대략 이랬습니다.
데모를 주동하기로 결정한 그룹은 바로 내일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데모에 돌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학생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데모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나도 데모에 반대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두 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데모에 반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솔직히 말해 두려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겁이 많은 나는 앞장서서 데모를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나는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적당히 뒷전에서 회의의 흐름을 쫓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반대파의 최전면에서 주동
자들과 설전을 벌였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예들려 표현하거나 감추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지혜가 모자란 거지요.
현명한 다른 친구들은 적당히 뒷전에서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회장조차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련한 나만
천방지축으로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나는 데모 주동그룹의 미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사실 난 그런 데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내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려면 미워하라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움만으로 그친 게 아니고, 얼마 후 나에게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
었습니다.

그 모임의 결론은 내일 아침 등교와 동시에 데모를 하는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데모를 리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나름대로 심경을 피력하는 글을 써 서랍에 넣어 놓았습니
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 드리면 난리가 날 테니까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학생회 중요 간부인 나는 분명히 잡혀갈 것이고, 그때 부모님이 그 글을 읽으시게 만들려
고 그걸 쓴 것입니다.

데모를하기로 한 날 등교하자마자 훈육주임에게 붙잡혀 교장실로 끌려갔습니다.
교장실에는 다른 간부들도 모두 잡혀와 있었습니다.
데모를 한다는 정보가 누설되어 학교 측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억류 중인 상태에서도 데모 주동그룹이 학생들을 이끌고 데모에 들어갔
지만,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소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어느 시간에 내 절친한 친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너에게 아주 불리한 말이 돌고 있어 애들이 못매를 가할지도 모르니 납죽 엎드려 있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제 선두에 서서 데모에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내가 데모 계획을 학교 측에 밀고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밀고자는 가혹하게 벌주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얼마 후 한 친구가 상기된 얼굴로 나를 보자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너 밀고했다는 게 사실이야?”고 으박질렀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내놓을 수 없는 곤혹스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확증은 없었기 때문에 으름장을 놓고 가버리기는 했지만 정말로 흉한 꼴을 볼 뻔 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난 절대로 밀고자가 아닙니다.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이 제보를 했을 리도 없습니다.

데모에 관해서는 부모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가 학교 측에 제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부모님이 제보를 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평소부터 학교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학부모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용의선상에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날 모임에서 선두에 서서 반대한 데 대한 미움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그때쯤에 나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 '재수 없는 녀'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반감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밀고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나는 밀고자가 절대로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속으로 "넌 밀고자야."라고 단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경멸감은 더욱 커졌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나는 얼마 안 가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에 연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후 나에게 그 문제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했지만, 그들 중 나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위기 상황에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 측의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누가 제보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보자는 학생회 측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광경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는 짐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학의 제1법칙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때 내가 겪은 시련이 공부를 잘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내 절친한 친구들이 그 점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지 못하고 설치댄 우둔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수도 있구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내 진로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법대 아니면 다른 데는 절대로 안 간다고 고집을 피웠던 내가 갑자기 상대로 진로를 바꾼 것입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던 내가 돌연 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

데모와 관련된 흥분도 가라앉고 우리는 또다시 고3의 바쁜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낙 낙천적인 나인지라,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서도 며칠 안에 평소와 같은 마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줄기 앙금이 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대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어도 갑자기 나쁜 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법대로 진학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공대로 가기를 끈질기게 권유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취업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공대를 나오면 취업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공대로 가기를 권유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수학이 싫어 죽어도 공대는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내가 법대로 가려고 했던 데는 조금 웃기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지만 법조계를 거쳐 정계 진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2때 말문이 트이고 고2때부터는 좌충우돌 마구 설치됐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설치대는 일이 적성에 맞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법대로 가지 말고 상대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두 분의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며칠 전 얘기한 고등학교 시절의 멘토 이계식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대학교 시절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정운찬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분들은 날 만날 때마다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짓궂게 물으셨습니다.

"야, 임마. 촌스럽게 무슨 법대냐? 상대 와라."

"선배님, 내 눈에는 상대가 더 촌스러워 보이는 뎁쇼?"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 오간 전형적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정운찬 선배님 사이의 인연에 관해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녔던 Sun 클럽은 미국공보원에서 방을 빌려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모임이 끝나면 늘 작은 키에 인자한 인상을 한 대학생이 그 방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다음에 모임을 가질 Century 클럽의 회장으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 그 방에 들어온 겁니다.

서로 몇 번 보고 안면이 생기자 후배인 나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바로 정운찬 선배님이었습니다.

가슴에 상대 뱃지를 달고 있었는데 그 뱃지가 아주 촌스러워 보이더군요.

푸른색 방패 모양의 뱃지였는데 자세히 보면 뱀 두 마리가 머리를 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상업의 신인 Mercury와 관련된 동물이 뱀이라서 그렇다나요?

하여튼 그걸 보고 멋지다고 반해 나도 상대 가겠다고 나설 미친 녀석은 없을 것 같더군요.

물론 그때도 나는 법대 갈 것이니 선배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부러지게 선을 긋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데모 사태를 겪고 나서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난 정치라는 걸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는 절대로 발을 담그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요즈음 내가 시사문제 글을 좀 쓰니까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내 과거를 안다면 그런 의심 하는 게 부질없는 일이란 걸 바로 알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건 공부니까 공부로 승부하는 진로를 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다면 갈 곳은 딱 한 군데, 즉 경제학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문리대, 즉 지금의 사회대와 인문대에 가볼 만한 수많은 학과가 있었지만 우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특별한 사연이나 의도가 없는 한 문리대는 잘 가지 않는 게 당시 우리 학교의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를 가지 않는다면 이젠 경제학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이왕 경제학과로 갈 바에야 내 몸값이나 높이자는 심산으로 이계식 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잘 설득하시면 경제학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접촉을 한 거지요.
경제학과 가기로 결정했다고 정직하게 말해 버리면 몸값이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 이계식 박사가 정운찬 선배님을 대동하고 점심 사준다고 나타나셨습니다.
점심 얻어먹고 나서 그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학과 가면 뭐가 좋은데요?"

정운찬 선배님이 은근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열 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장관 되고 청와대 수석도 되고 엄청 잘 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잘 나가는 경제학 박사분 누구, 누구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경제학과 가기로 결심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말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뜬을 들이다 드디어 결심한 듯 "저 경제학과 갑니다."라고 말했더니 순진하신 두 분은 기뻐하며 손을 잡으시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놈이 심술궂게 술책을 부린 것이지요.
그렇지만 진심을 말하자면 그 분들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서 그렇게 술책을 쓴 거였습니다.

그 후 내가 법대에서 상대로 진로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법대 가려는 녀석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 주면서 정말로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격려했습니다.
상대 가려는 녀석들은 법대나 가지 왜 상대를 지망해 속을 썩이냐는 원망스런 표정으로 날 노려보더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잘못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내가 경제학에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 학생들은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경제학은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문이고 이건 내 성격에 잘 맞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논리적 학문보다는 직관적 학문이 더 적성에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아시듯 수학 싫어하는 사람이 경제학 공부하면 고생이 심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 난 그때 경제학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일반사회의 연장선에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지만 암기과목 중 하나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수학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더라통신' 정도의 정보, 즉 경제학 공부하려면 수학 잘해야 한다더라라는 풍문을 들어 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법대 지망한다는 사실에 늘 혀를 차시던 사회 선생님은 경제학과로 진로를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보시더니 너 경제학과 가면 역사학과 경제학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우리 사회의 경제학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섰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것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귀 기울여 준다는 점도 나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별 정보도 없이 그저 뽑기 식으로 경제학을 선택한 내가 무모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무모한 선택으로 인해 세계적 학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어보질 못하고 동방의 한 작은 나라에서 듣보잡 경제학자로 저물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수업 중에 정운찬 선배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따면 곧 바로 장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날 봐라. 장관은 커녕 학장도 되지 못하지 않았냐? 정 선생님이 어린 후배에게 뺨을 쳤다 이거야."

애들이 그걸 정 선배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하루는 날 보더니 "너 불만 있냐? 지금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냐?"라고 다그치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옴, 소생 100%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위기를 넘겼지요.

그 뒤 스스로 총리가 되심으로써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하하하.

4. 대학생 시절

지긋지긋하던 고3 생활이 끝나고 내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고3때의 위기는 나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대학교 1학년 때의 위기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 내가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가 끝나고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던 1968년 2월은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기억합니다.

공부의 부담을 훨훨 집어던지고 매일 친구와 만나 이리저리 쏘다니는 재미가 여간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맞춰 주신 신사복 입고 벡타이를 매고 나서니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여학생들과 다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하다가 집사람에게 매 맞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개 국민학교 동창생이나 Sun 클럽 같이 했던 여학생들이었는데, 오랫동안 다시 연락이 재개 되기 감개무량 하더군요.

다만 전화할 때 아버님이 바로 옆에서 감청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딱 한 대 있던 전화가 바로 아버님 자리 옆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엄격한 감시하에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다라도 좀 떨면 통화 끝나고 바로 핀잔이 들어왔습니다.

점잖지 못하게 여학생과 시시덕거린다고요.

요즈음 휴대폰 들고 제 방에 문 닫고 들어가 전화하는 여러분 세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대학생 영어회화 클럽인 Century에 내 발로 걸어들어 갔습니다. 거긴 정운찬 선배님이 회장을 하였고, 이제식 박사도 다니고 있었으므로 대학 들어가면 당연히 나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학도 하기 전에 기어들어간 나를 고깝게 보는 선배님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Century에 가니 누님뻘 되는 선배 여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더군요.

나로선 신나지 않을 수 없었죠.

예전에는 어른으로 우리러 보던 여자 대학생들이 날 동료로 대접해 주니 신이 날 수밖에요.

하여튼 그때는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큰 시험에서 개기는 버릇이 있어 대학입시에서는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모의고사 10번 중 9번에서 1등을 차지한 나에게 서울대 전체 수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수석이 아니라면 최소한 상대 수석을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매년 우리 학교에서 상대나 법대 수석이 나왔으니 그렇게 기대하는 게 무리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막상 발표 결과를 보니 우리 경제학과에서 서울대 전체 수석이 나왔더군요.

(그 사람은 서울공대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학생들 가르치면서 입학 준비를 했다더군요.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사라져 버려 우리 동창들 중 그 사람 얼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 수석조차 물 건너 간 거지요.

큰 시험에 유난히 약한 내 고질병이 도진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 놀러 다니는 것은 좋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더군요.

나더러 스타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갓 스물의 어린애였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런 욕심 있을 테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 허전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쓸모없는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의 예 중 하나가 교양과정부 반 대표에 출마해 치열한 선거운동까지 벌인 일입니다.

내가 입학했을 때는 공대, 문리대, 법대, 상대 신입생 2천 여 명을 교양과정부라는 데 몰아넣고 함께 교육시켰습니다.

학과는 무시하고 반으로 편성해 문A, 문B, 이A, 이B의 범주로 나눴습니다.

나는 문B 7반이었는데 거기 반 대표로 출마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거 하라고 해도 귀찮아서 도망갈 텐데, 뭐가 좋다고 동료들에게 나 찍어 달라고 돌아다녔는지 모를 일입니다.

고3 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때문이었지요.

선거 결과 박빙의 차이로 반 대표에 뽑히긴 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무디어졌는지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30명의 반 대표가 뽑힌 후 그들 중에서 교양과정부 학생회장이 뽑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던 친구는 공대 반 대표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상황을 마음대로 해석해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교를 대표해 내가 학생회장에 출마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심각한 오판이었지만 내 주위에서 그걸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친구는 날 찾아와서 이젠 너밖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가 내가 출마한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재수해서 들어온 선배님들도 네가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반 대표 30명 중 우리 고등학교 출신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출신 반 대표 한, 두 명만 포섭하면 바로 학생회장으로 뽑히는 구도였습니다.

선거 당일 우리 고등학교 출신 반 대표가 따로 모였고 거기서 재수생 형들이 나를 밀어주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내 친구들 얼굴을 보니 그리 탐탁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욕심이 있을 테니 그리 기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헤어진 다음 다시 모여 투표장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우리 동창 몇 명이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잡아끌더군요.

그래서 다시 모였는데, 한 명이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넌 안 돼."라고 선언하더군요.

아마 그 동안 자기네들끼리 교감이 있었고 나를 배제하기로 입을 맞췄나 봅니다.

나는 이미 합의한 것을 왜 뒤집느냐고 항의했지만 전혀 씨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대 애를 내 대신 후보로 밀기로 합의하고 투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나에 대한 엄청난 인신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점잖게 "너는 양보하는 게 좋겠다."는 식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무릎을 꿇게 만
들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일생 동안 먹은 욕 중의 90% 정도는 그 반시간에 모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낸 후보는 14표를 얻어 떨어졌습니다.
단 한 표도 더 얻지 못한 거지요.
내가 나갔어도 그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일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때는 그래도 내가 잘못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틸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경솔하게 나댄 탓에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경우가 달랐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설쳐댄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은 우리 동창 만나면 "재도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잘못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올 판이었습니다.
하여튼 고3 때의 일과 이번 일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내가 가야할 길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이젠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일랑 전혀 하지 말자. 나 홀로 노력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해
야 한다."라는 게 내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학자로의 길을 가기로 철석같은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내 인생에서 그 뒤로 (아주 작은) 감투를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뛰어서 그런 감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교수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느냐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내가 당한 수모는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나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내 친구들이 보인 태도는 약간 악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에게 특히 가혹한 언사를 퍼부은 친구가 한, 둘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나에게 명백한 악의를 갖고 헐뜯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나를 몰아세웠으면서도 그 후 나에게 미안하다는 한 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언제나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 나는 바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를 말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피차 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 한 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명백한 가해자였는데요.

이솝 우화에 돌 던지는 사람에게 개구리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작은 일이 남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니, 상처를 주려는 명백한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게 분명합니다.

내가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나무라지는 마세요.

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요.

그 친구도 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나는 동창회에서 그를 만나면 개무시 작전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 동안 사귀어온 사람 중 그런 대접을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감정의 앙금이 있는데도 반가운 척 악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나의 은인인지도 모릅니다.

나로 하여금 부질없는 욕심을 버어던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제자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를 어느 정도 성취한 셈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대학 1학년 시절의 그 쓰라린 경험이 훗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었다면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

어제 말씀 드린 사건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특유의 낙천성에 힘입어 얼마 안 가 다시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즐거운 대학생활을 맘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즐거운 추억은 여름 방학 동안 창원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간 일입니다.

지금도 창원 공단이 되어 버려 그때의 목가적인 모습의 편린조차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그야말로 '내 고향 남쪽 바다'를 연상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멋모르고 햇볕에 그을려 피부에 화상을 입고 피로워했던 기억이며, 모기에게 밤새 물렸던 기억

들이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것은 냇가에 누워 올려다 본 은하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그만 별들이 마치 강처럼 흐르는 모습은 두고두고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별들의 강을 쳐다보면서 거의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아쉽게도 그 아름다운 은하수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냈지만 교우관계에서는 어려움을 자주 겪었습니다.

교우관계의 고민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겪는 고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법이고, 그 과정에서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왜 나만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 겪은 일 하나를 얘기해 드리지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공대생과 우연히 만나 차를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 알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떻냐고 제의했습니다.

당시 나는 독방을 쓰고 있었기에 그 친구와 함께 하루 밤을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갑자기 그런 제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 이불을 깔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친구가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난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좀 더 많이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너희 집으로 오게 된거야."

나는 그 친구가 예전에 날 싫어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해이고 알고 보니 넌 나쁜 녀석이 아니라는 말에 저음이 안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했다고 고백하고, 조금 웃기는 말을 한 마디 했습니다.

내가 늘 웃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싫었다는군요.

날 싫어했던 이유 치고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는 진지하게 내 웃는 모습을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잘 웃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아마도 그게 오만으로 비쳐졌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 나는 친구들에게 '재수 없는 녀'으로 찍혀 있었고, 그러니까 웃는 모습조차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친구와는 그 뒤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 사건에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겁나더군요.

내가 특히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노력하며 사는 편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미안한 일 가끔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모질게 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런 직접적 접촉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점잔을 빼며 말하는 것도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점잖게 말하는 버릇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즈음도 내 언사가 약간 거친 측면이 있는데, 그때 고민 끝에 그렇게 바꾸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웃기지요?

친구들 때문에 말투까지 바뀌야 했던 일이 말이지요.

그만큼 친구관계에 대한 내 고민이 컸던 셈이지요.

이젠 왜 내가 친구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젠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많이 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예전의 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상하리만치 그런 인간적 고뇌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이 1학년 때 몰아서 나를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경제학과 친구들과의 짝은 우정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2학년 시절 우리들은 강의가 없을 때면 늘 농구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늘 함께 농구를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형제처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만나서 함께 농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복학생이었던 김근태 의원도 우리 농구팀의 일원이었지요.

수비하면서 그 분의 허리띠를 잡는 등 차징을 많이 했지요.

땀병에서 너무 농구를 많이 한 나머지 얼굴이 흑인처럼 그을려 보안사 요원의 검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스 타고 춘천 가는 도중 의암댐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젠 공부에 대한 압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과히 열심히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F학점 맞으면 권총 찼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닐 때였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야 비로소 노트 빌려다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시험 시즌이 오면 내 노트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내가 필기를 잘한다는 평이 있어 모두가 그걸 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복사를 할 수 있으면 노트 빌려가서 바로 돌려줄 수 있지만 그때는 필사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빌려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하는 형편이었지요.

대부분의 내 친구들이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열흘쯤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A학점을 문제없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학점과 관계없는 이념서적을 열심히 읽는 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때 이념서적 열심히 읽던 친구들이 지금은 우파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구태여 이념서적 읽는 걸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생한 증거지요.)

그러니 난 공부에 대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된 겁니다.

하여튼 2학년 때부터의 내 생활은 늘 평화롭고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춘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을 썩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건 젊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지요.

이때부터 내 특유의 낙천성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도 우리 '682구락부'의 농구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경제학과 학번이 682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운동장으로 뛰어가 난폭한 농구 게임을 즐겼습니다.

상대 캠퍼스에 여성이란 도대체 찾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면 옷통을 벗은 채로 캠퍼스를 활보했습니다.

여학생이 한 명조차 없어 섭섭하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무한한 자유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상과대학에서는 '홍릉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합창회, 쌍쌍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마라톤 대회에 대비해 연습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12km의 단축 마라톤이었는데, 상대 캠퍼스가 있던 종암동을 출발해 수유리 입구까지 왕복하는 코스였습니다.

2학년 때 마라톤에서 나는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거의 기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나름대로 10위 안에 들 목표를 갖고 뛰었는데, 반환점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지점에서 선두가 경찰차 호위를 받으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 마구 달려나간 나머지 반환점을 돌고 나서는 배가 아파 도저히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쪽 팔리는 것을 무릅쓰고 한참을 걸었는데, 뒤에서 친구가 같이 뛰자고 부르더군요.

우리 학과 졸업하고 국사학과에 학사편입해 지금 우리 대학 국사학과 교수로 있는 권태익 군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을 불어 넣어준 덕분에 다시 뛰기 시작해 간신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수모를 만회하려고 3학년 때는 열심히 운동장을 돌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처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학생처장님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학생처장은 경제학과 교수로서 우리 대학 총장과 총리를 거치신 이현재 선생님이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나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출을 받았는데 안 갈 수도 없어 마지못해 그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나를 보시더니 대뜸 "너 미국 한 번 갔다 올래?"라고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솔깃하긴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치며 "전 군대 갔다 오지 않아 외국 여행은 전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에 군미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이든 단기여행이든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배려가 있을 것 같으니 시험 한 번 쳐 보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자초지종이 이러했습니다.

그해 7월에 국제연합(UN)에서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Assembly)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5명의 청년 대표가 모여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당시 UN 가입국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냉전외교의 일환으로 대 UN 외교에 힘쓰던 때였습니다.

매년 가을 UN에서 한국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즈음이면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에 온 신경을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 청년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군미필자에게도 여행의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 대표단 선발에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단 선발을 책임진 UNESCO 한국위원회는 각 대학과 청년 단체에 2명씩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서울대에도 그런 요청이 왔고, 상대를 유난히 챙기시던 이현재 선생님이 상대생인 나를 그 중에 끼워 추천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추천을 받았어도 대표단에 뽑히려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과 경쟁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주로 영어 실력 위주로 선발을 했는데, 시험을 치러 온 면면을 보니 난 도저히 뽑힐 수 없는

사람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연수 갔다 온 사람, 통역관 하는 사람 등 모두가 쟁쟁한 사람들뿐이었고, 나처럼 100% 순수 토종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선생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시험을 쳤지만, 전혀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합격자 명단을 보니 다섯 명 중 내 이름이 끼어 있는 거였습니다.

내 영어실력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토종 영어가 나름대로 저력을 발휘한 데다가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 번 내가 역세계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난 홍콩제도 모두 때려치우고 미국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국이고 뭐고 모두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때는 여권 따는 과정에서 어찌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사람들이 김포공항 떠나면서 한국 땅에 침을 뱉고 나간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3일만에 여권이 나오는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상황이지요.)

하여튼 7월 3일인가 드디어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뉴욕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엠펙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며, 자유의 여신상이며, 5번가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촌놈이 큰 출세를 했던 셈이지요.

그런데 정작 회의는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이 되기 전부터 소련 등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들이 톡톡 뭉쳐 한국, 대만, 베트남 대표단을 축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는 나라니까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쫓겨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회의 개시 직후 행해진 투표에서 간신히 축출을 면했지만,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영어가 엄청나게 유창한 우리 대표 한 사람만 발언을 하고 나머지 네 명은 멀건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나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곳곳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한 나머지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몸살로 일어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멀리 이국 땅 헤이그에서 분사하신 이준 열사를 생각했다면 난 과대망상증 환자일 테지요?)

하여튼 그 여행을 통해 미국 생활, 그리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5년 후 미국 유학을 가서도 그리 버벅거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그건 외교관이란 직업을 결코 선택하지 않을 거란 결심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은 정말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오늘 글을 끝내기 전에 3학년 말 겨울방학 얘기를 해야 하겠군요.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나니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대학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제학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 드려 그 시점에서 경제학원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100% 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학원론이라도 마스터하자는 생각에서 Samuelson의 경제학원론 책을 들고 문리대 도서관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상대 도서관이 아니고 문리대 도서관이냐구요?

물론 그쪽 물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문리대 도서관에 가면 그래도 여학생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청춘사업까지 해결하면 썩 먹고 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슴없이 문리대 쪽을 선택한 겁니다.

요즈음도 그렇지만, 그때도 난 일찍 일어나는 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문리대 도서관에 들어가면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자리 한, 두 개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기피하는 자리라서 남은 것인데, 난 할 수 없이 매일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Samuelson 책은 나쁜 종이를 썼기 때문에 유난히 번들거렸습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에 내 경제학원론 인쇄할 때 좋은 종이 쓰라고 출판사에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잔인한 햇빛 반사광 때문에 내 시력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제학원론을 다 읽은 시점에서 나는 안경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겨울방학에 Samuelson의 경제학원론은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을 외워서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유학을 떠났을 때의 경제학 실력이 바로 그 수준이었습니다.

즉 경제학원론 간신히 켜 상태에서 무모하게 Princeton의 박사과정에 기어들어간 겁니다.

경제학원론이나 마스터하고 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못하고 유학 떠났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학년 때의 겨울방학은 내 인생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은 경제학원론을 마스터하기 위해 입은 영광의 상처라는 의미를 갖구요.

♪♪♪

대학 4학년 시절 역시 이렇다 할 공부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4학년 때 들은 과목들은 더욱 널널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은사님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시만 해도 대학교육의 기본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로 주옥 같은 강의를 하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시 서강대 교수로 계셨던 박성용 선생님의 강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 대학으로 강의를 나오셔서 "거시경제학 특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분이 Yale에서 전공하셨던 경제성장론을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닐 때 상과대학에는 거시경제학을 가르치실 수 있는 교수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2학년 때 거시경제학은 한국은행 조사역으로 계신 분이 와서 가르치셨는데, 솔직히 말해 배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거시통계를 작성하는지 정도의 설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분은 우리 가르친 다음 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우리의 미시, 거시 실력은 문자 그대로 짱이었지요.

강의 첫 날 박선생님은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강의의 수준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눈만 껌뻑이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에지워스상자에서 생산가능곡선 도출하는 방법조차 몰라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꼬락서니가 답답하셨는지 "너희들 서울상대 4학년생 맞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상대 4학년이 그렇게 무식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셨겠지요.

너무 쪽이 팔려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인 주제에 그런 것도 모른다니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 강행군이 시작되는데, 그야말로 지옥행군 같았습니다.

매일 널널한 강의에만 익숙해진 우리였던지라 정말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려니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 짝이 없었으나 차츰 적응이 되어가고 급기야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군요.

그 강의를 들은 효과는 유학시절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학원 2학기 거시경제학은 반 이상이 경제성장론이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기초를 워낙 잘 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을 조금만 더 붙이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강의 내용도 귀에 술술 들어왔습니다.

대학원 시절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잘 몰라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실력은 똑같은데도 내용을 잘 아는 경제성장론은 유독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걸 보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요즈음 각 대학에서 영어 강의랍시고 난리궂을 떠는 모습을 내가 가소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영어 강의 잘 알아듣게 만들려면 전공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영어 강의 한답시고 공연히 시간이나 축내게 만드는 게 교육은 아닙니다.
자신이 진지하게 공부해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겁니다.

비록 시간강사로 나를 가르치셨지만 나는 그 분을 일생의 스승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그 분의 강의는 가뭄 끝에 내린 소낙비와도 같은 후련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강의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행운아 중의 행운아입니다.

그 분은 얼마 후 학계를 떠나 재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금호그룹 창업자인 부친의 뒤를 이어 금호그룹 회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을 하실 때도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등 여느 재벌과는 다른 모습을 보
였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지만, 난 그 분의 학은(학문적 은혜)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 합니다.

어영부영 대학생살을 끝내고 졸업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내 가장 큰 고민은 군대 문제였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입대를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영낙 없이 논산행 열차를
타야 하는 판이었습니다.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모든 문제가 유예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졸업 후 해군 장교로 많이 갔는데, 난 수영을 못해 해군으로 가기도 겁이 났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예비역 해군 중위인 양동휴 교수에게 했더니 해군은 수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을 하더군요.
해군이 해업을 치게 되는 상황이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수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시간은 자꾸 흐르고 드디어 졸업을 할 때가 왔습니다.

상대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고등학교 때에 비하면 수석 하는 게 정말로 쉬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제 친구들이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경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석을 한 덕에 청와대에 초청되어 점심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해마다 서울대 단과대학 수석 졸업자를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독재를 한 건 사실이지만 서울대학교를 꽤나 위해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할 때도 부인을 대동하고 졸업식장을 찾았습니다.

당시는 박 대통령의 독재정치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았던 시절이라 학생들은 박수로 치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졸업식장에 오지 않더군요.

50분짜리 MBC TV에도 출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녁의 음악산책'인가 뭔가로 기억됩니다.

저녁때쯤 세미클래식 음악을 틀고 곡들 사이에 게스트와 MC가 대화를 나누는 포맷이었습니다.

열 몇 명이나 되는 단과대학 수석 중 왜 하필 내가 불려가게 되었는지 모르는 채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PD 말이 대통령상이라는 게 돌려먹기라는 걸 뻔히 아는지라, 서울대 측에 올해 졸업생 중 누가 학점이 제일 높은지를 물어보고 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나는 TV에 출연해 그 동안 공부로 나를 괴롭히신(?) 아버님께 내 나름대로 복수를 해 드렸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 수석을 차지하셔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나 : "별로 그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네?"

나 : 목소리를 깔며 "네."

나중에 누나에게 들으니 그 광경을 보시던 아버님께서 신음하듯 "나쁜 자식!"이라고 부르짖으셨다는군요.

정말로 철이 없는 녀석이었지요?

우리 아버님이 그만큼 욕심이 많으시다는 걸 꼬집고 싶어서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은 아버님께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는 데만 정신을 팔았던 대학생활을 정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비록 공부는 짱이었지만, 돌아보면 꿈처럼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의 내 인생에서 이런 멋진 시절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학생활 얘기를 모두 마쳤으니 며칠 동안 조금 쉰 다음 대학원 생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대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모두 끝내기 전에 미팅이란 거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때는 남녀교제가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이라 이성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미팅이란 모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의 대학문화에서 미팅이란 걸 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수업시간에 내 대학생활 얘기를 자주 해주는 편인데, 늘 빠지지 않는 것이 1학년 때 미팅을 30번쯤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날 내 팬을 자처하는 한 여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제발 미팅 30번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더군요.

내가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의 미팅과 그때의 미팅이 아주 달랐는데 그 차이를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니다.

잘 모르지만 지금의 미팅은 소개팅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1학년 한 해 동안 30명의 여학생들과 만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미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제학과가 어떤 영문과와 미팅을 한다고 하면, 약 스무 쌍 정도의 남녀 학생들이 모입니다.

커피숍 같은 데를 통째로 빌려 놓고 모임을 갖는 거지요.

파트너를 정해 놓고 인사한 다음 간단한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팅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그때는 미팅이 대학생들에게 열린 거의 유일한 남녀교제의 장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큰 기대를 걸고 미팅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제로 인연이 맺어진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고 미팅에 가보지만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기 파트너보다 친구의 파트너가 더 멋져 보이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사람의 심리란 게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가 1학년 때는 문B7반의 반대표, 그리고 2학년 때는 경제학과의 과대표였는데, 내가 뽑히면 미팅 주선을 잘해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상당히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학생을 많이 알고 지낸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때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더러 초등학교 동창생 네트워크가 제법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당시의 나는 대학가의 사교계에서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미팅을 30번 나갔다면 그 중 절반은 내가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지요.
그러나 실속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더 많은 표를 팔기 때문에 미팅을 주선한 나는 1순위로 파트너를 사양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남자 참석자가 남아도는 판에 주선한 사람이 파트너 께차는 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지요.
나는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나 먹고 오기 일쑤였습니다.
미팅을 30번이나 했다 해도 실속은 전혀 없었던 셈입니다.

그래도 그 시절을 회상하면 미팅 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을 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더군다나 여성이라고는 교직원 딱 두 명만 존재하는 '금녀의 구역' 상대의 삭막한 교정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로서는 미팅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지요?



대학원에 진학하고서도 무위도식의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학부 시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그 해 11월에 군대 갈 때까지 두 학기를 다녔는데 수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인사하시고 나간 다음, 다시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은 겁니다.
그 점에서는 모든 과목이 똑같았습니다.
정말로 과장 한 점 보태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매일 학교에는 갑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휴강이라는 공고를 보고 교실을 떠납니다.
할 일이 없어진 우리는 그때부터 무얼 하고 시간을 때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꼬박 1년 동안 한 겁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새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후 일생 동안 내 곁에서 친하게 지낼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내 옆방에 있는 이지순 교수가 바로 그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 학부 때는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경영과라 별로 친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대학원을 경제학과로 오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수는 무골호인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 친구의 사람 좋은 미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푸근한 미소가 그 사람의 성정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은 약간의 고집이 생겼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천사표 그 자체였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 자신은 늘 악한 중의 악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휴강 공고를 보고 이지순 교수와 나는 대개 문리대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거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자는 거였지만, 본심은 물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상과대학은 그야말로 '금녀의 구역'이었던 데 비해 문리대에는 가뭇에 콩 나듯 여학생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만 가면 우리 같은 촌놈들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우리는 이왕 거기 가는 김에 수학 과목이나 하나 청강해 보자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해석학을 알아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해석학이 뭐 하는 건지는 손톱만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어디서 해석학을 써먹게 되는지는 더욱 몰랐습니다.
그냥 한 번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2학년 해석학 입문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첫 날부터 알지 못할 말들만 내리 나오더군요.
그런데 2학년 수학과 학생들 중에는 내 친구 여동생도 있는지라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수학도 잘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 그걸 깰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려니 웬만한 고역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여기 다른 과에서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시더군요.
나와 이지순 교수 둘이서 손을 번쩍 들었지요.
그랬더니 "너희들 어느 과에서 왔니?"라고 물으시더군요.
경제학과 대학원생이라고 신분을 밝히니 "너희들이 이거 들어야 알아먹을 수 있겠니? 다음 시간부터는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켜왔던 판에 난 "오냐, 잘 됐다."라는 심산으로 청강을 그만두었지요.
(그와 같은 선택의 대가는 나중에 유학 가서 톡톡히 치렀습니다.)

요즈음 학생들 보면 앞날을 대비해 준비를 잘도 합니다.
스펙을 높이기 위해 이일 저일 모두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는 유학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그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그리 무모하게 살 수 있었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대학원 다니는 1년 내내 무위도식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니 부담도 전혀 없는 데다가, 나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는 타입도 아니니 공부가 될 리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라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1년 동안 무얼 하면서 지냈는가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기억력이 비교적 좋은 건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1년의 기억은 거의 백지상태인 겁니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으니 그런 거지요.

학자가 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학부 때 4년에 대학원 때 1년이란 시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린 셈입니다.

(나중에 군대 가서 거기에 3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학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응보겠지요.

그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놀아 제꼴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하겠는데, 당시 나는 유학 가서의 공부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듯 시험 준비 조금 해서 A학점 맞으면 그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에 대한 준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냥 허송세월을 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학원의 1년을 맘껏 놀기라도 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군대 가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 때문에 맘껏 놀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얼마 안 있어 군대 가야지."란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 군대 갈 것 그냥 체념해 버리고 살았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해 10월이 되자 소위 '10월 유신'이라고 부르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를 진주시킨 겁니다.

계엄령 선포와 더불어 모든 대학이 휴교에 들어가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학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수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대학원 2학기는 9월 1일에 시작해 10월 초에 종강을 맞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설사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내 노력이 부족해 실력이 없는 점도 있지만, 이런 비참한 환경의 영향도 컸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구요.)

하여튼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내 어리석음도 한탄스럽고, 그 어수선한 시대도 한탄스럽기 때문이지요.

5. 군대와 짧은 사회생활

남자들은 잘 아는 일이지만, 나이 들어 군대에 들어가면 더러운 꼴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난 언제 어디로 입대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간 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 일반 사병으로 가면 고생을 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장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약속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학원 다니면 육사 교관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길마저 막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9월쯤인가 10월쯤 되는 어느 날 한 교수님으로부터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찾아가 보니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솔직하게 별 계획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더니 자기가 소개해 주는 곳으로 갈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자기 동창이 지금 군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대에서 대학원생을 특별히 영입하려 한다더군요.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퇴근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군인들 얘기는 워낙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씀을 혼잣말로 하시더군요. 그런데 난 대학원생을 특별히 모집한다는 점 하나만을 보고 그리 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 사병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보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4개 학과에서 각 2명씩 8명을 스카우트해 놓았더군요. 상대에서 2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문리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 가지 않고 어느 날 바로 군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군대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4주간 단단한 훈련을 받고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이 있었던 출퇴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복 근무는 허용되어 그나마 조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 내가 그래도 제일 어린 편이었습니다. 문리대 출신 대학원생들 역시 입대를 차일피일 미루다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개 나이가 많았습니다. 대학원생에서 갑자기 군인이 된 데다가 나이까지 많으니 군기라는 것은 찾아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서 이름이 '평가실'이었는데, 부대 안에서 평가실 사람이라면 '고문관'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고문관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바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대학원생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어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교나 하사관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보낸 3년 동안 웃기는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문리대생들과는 기질이 맞지 않아 처음에는 충돌도 많았습니다.

우리 상대 출신의 눈에 문리대 출신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친해져 서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물과 기름처럼 겹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 언론사 사장 된 사람, 교수 된 사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군대에서의 행태가 알려지면 부끄럽게 느껴질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책 읽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약간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학을 공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한 바 있지만 경제학을 공부한다면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서라든가 소설, 어학 책 - 이런 것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유학 가려면 유학시험에 패스해야만 했습니다.

영어, 국사, 상식의 세 과목이었는데, 일년에 5천 명 정도가 지원해 약 2천 명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나 몇 번씩 떨어져 유학을 가지 못 가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도가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자질이 되지도 않는 사람까지 너도나도 유학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병장 시절에 이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TOEFL, GRE Aptitude도 모두 끝마쳤습니다.

편한 군대생활 덕을 톡톡히 본 셈이지요.

그러나 군대 생활 34개월이 정말로 지루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쫄병은 쫄병이니 가끔 더러운 일도 당했습니다.

너댓새 만에 돌아오는 야간 근무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4시까지 경계를 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정말로 열악한 식사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수업 중에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의 식사는 거의 매끼가 염적무국이라는 한 가지 반찬뿐이었습니다.

거의 매끼가 김치도 없는 1식1찬이었던 것이지요.

염적무국이란 찐무를 썰어 된장 넣고 끓인 것인데, 늘 씹쓸한 맛이었습니다.

미원이나 다시다 넣으면 맛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야식으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날은 그야말로 호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휴가 나갔다 돌아오는 동료들이 싸들고 들어오는 떡을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공상스럽게 지낸 나날이었습니다.

내가 카투사 갔다 온 사람을 구박하는 것은 내 눈에 군대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난 1식1찬으로 영양실조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는데 이 친구들은 매일 기름진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심술로 카투사 갔다 온 사람들을 구박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진심을 말하자면, 한국군이든 카투사든 군대 갔다 온 남자는 갔다 오지 않은 남자에 비해 몇 백 배, 몇 천 배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 9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전역의 날을 맞았습니다.

충기를 반납하고 예비군복 받아 올 때는 하늘로 뛰어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몽땅 보내고 27살의 중늙은이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을 1년도 하지 못하고 다시 백수वाद 같은 학생생활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유학 가서 공부 때문에 고생한 것이 군 복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학부 때, 대학원 때 워낙 공부가 부실했기 때문이지 결코 군대 탓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군대 가서 잊어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워낙 머리에 든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요즈음 학생들이 공부를 구실로 병역 특혜 운운할 때 내가 비웃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군대 핑계를 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학원생들에게 '육개장'이라는 병역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 제도가 우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굳어져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앓을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걱정을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를 권합니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군대 22개월 정도 갔다 오는 것으로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R. Solow는 Harvard 재학 시절 2차 대전이 일어나 이탈리아 전선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했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했다는군요.

그런 경험 가진 사람도 훌륭한 학자가 되었는데 2년도 못 되는 군복무 핑계를 낸다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

내가 군에서 제대한 것은 1975년 9월 초였습니다.

군에 있을 동안 유학에 필요한 시험을 대충 치르긴 했지만 그 해에 바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76년 9월 학기에 맞춰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 후 거의 1년 동안을 한국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대학원에 복학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한국은행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거긴 가기 싫었습니다.

졸업할 때 상대 우수졸업자 5명에게 특별채용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박탈기 때문에 새삼스레 시험을 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들어가서 정식으로 일을 배울 만하면 떠나야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부담이 별로 없는 외국계 회사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후배가 있는 Bank of America에 지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국계 회사가 그리 인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보수는 좋았지만 승진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접하는 분들이 상과대학 수석 졸업생이 지원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왜 지원하게 되었냐고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군대 말년에 입사시험을 쳐서 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은행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명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명동이 서울의 최고 변화가였습니다.

강남은 제대로 골격조차 갖춰지지 못한 때였으니까요.

좋은 음식점들도 모두 명동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는 어디서 점심을 맛있게 먹느냐가 즐거운 고민거리였습니다.

3개월 동안 수습을 받았는데, 세 개의 부서를 한 달씩 돌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영업부에서 수습을 받을 때였습니다.

나는 금고 열쇠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창구에 손님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잘 세지 못해 과장으로부터 혼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혼나고 있으면 평소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창구 여직원이 슬쩍 내 곁으로 와서 대신 돈을 세어 주기도 했습니다.

(창구직원 중엔 내 클럽 후배, 서울대 후배 여학생이 꽤 있었으니까요. 보수가 좋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학벌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낙으로 삼았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매일 한국은행에서 현금이 배달되어 오는데, 새 돈과 현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 돈은 창구에 주지 않고 금고 깊은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선 월급날이 되어 경리과에서 돈 달라고 왔을 때 새 돈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새 돈이 든 월급봉투를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려고요.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걸 낙으로 삼았겠습니까?

그 은행은 9시 출근에 6시 퇴근을 정확하게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야근 하는 것을 극력 말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로 야근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니 그 자유를 맘껏 즐겼습니다.
요즈음 그런 직장이 있다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난리를 칠 텐데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이외의 사회 경험은 그 은행에서의 9개월이 유일한 것입니다.
거의 전 인생을 학교에서 보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경험이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습니다.
은행에 처음 들어갔더니 고참 직원들이 군기를 잡으려 들더군요.
학벌이 약간 떨어지는 선배 직원들이 특히 날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군대에서 배운 웃기는 얘기로 분위기를 누그러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선배 직원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만나면 웃기는 얘기 더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웃기는 얘기 하나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내 말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은행 다닐 때가 참 좋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아 함께 놀러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20대 팀과 30대 팀의 축구 경기를 주최해 두 번이나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속한 20대 팀이 두 번 연속으로 지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기는 했지만요.)
예쁜 여직원이 많아 근무 분위기가 좋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구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보면 큰일 나는데.....)

그때 난 미국 갈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새 양복을 많이 해 입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미국 가면 조교 한다는데 티셔츠에 청바지 입어서야 쓰겠냐고 자꾸 양복을 맞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막상 미국 가보니 양복 입을 기회가 전혀 없어 그냥 낡아져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요.)
새 양복 입고 나가면 입구에 앉은 여직원이 용케 알아보고 착복식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착복식은 주로 전 직원에게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돌리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오후 한가한 시간에 모두들 브라보콘 하나씩 입에 물고 사무를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지만 나에게 잘 대해준 선배, 동료들을 아직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다니면서 내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학의 무지함에서 약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학부 다닐 때는 경제수학을 공부할 만한 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졸업할 때 쯤 되니까 A. Chiang의 책이 처음 선을 보이더군요.
은행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9시 출근인데 8시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은행을 그만둘 때 약 350페이지 정도를 읽었던군요.
그게 유학 가기 전 내 수학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독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나마의 준비라도 있기에 큰 다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못 읽고 유학을 떠났다면 박사학위도 못 받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거기서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병장 시절 입사시험을 칠 때 그 사람이 시험 감독을 했습니다.
대학은 후배지만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되니 은행은 내 선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만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매스컴 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판도 매스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결혼에 골인했느냐는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남의 연애담은 언제나 재미있는 법이지요.
그 동안 책을 많이 써보았기 때문에 독자의 성향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중시하는 나인지라 여러분의 열망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만 말씀 드리자면, 7월 3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마 때라 비가 내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소나기가 한 줄기 쏟아지고는 그쳤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다가 8월 12일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Princeton에서의 학교 아파트는 16일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 스케줄에 맞춰 무조건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국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한 지 4년 반만에 유학의 길에 오른 것입니다.



은행에 다니면서 몇 개의 대학을 골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미국 대학들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주먹구구로 학교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고,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지원하는지조차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물어 간신히 알아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찍기 식으로 지원할 대학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이름이 멋있게 들리는 두 대학을 골랐습니다.

Harvard와 Yale이 바로 그 두 대학이었지요.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그 두 대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 그때는 Princeton 경제학자가 그렇지 좋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다닌 학교이고 Ivy League에 속하는 학교라 어느 정도 좋은 줄만 알았지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단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정운찬 선배님이 거기서 공부했다는 친밀감만으로 그 학교를 제3의 지원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건 100%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대학이 Minnesota였는데, 그 학교를 고른 이유가 웃겼습니다.

좋은 대학 3개만으로는 불안하니 보험을 들듯 조금 널럴한 대학을 골라 지원하자는 동기였습니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격이었습니다.

당시 Minnesota의 경제학과는 거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top 10에 넉넉히 들 정도였습니다.

미시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L. Hurwicz, 그리고 거시에는 N. Wallace, T. Sargent, 계량에는 C. Sims 등 쟁쟁한 스타들이 포진하고 있는 명문이었습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지원을 하는 웃기는 짓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주립대학 중 하필이면 왜 Minnesota를 골랐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Ohio, Iowa, Washington, North Carolina, Teaxs, Indiana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주립대학이 술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왜 하필 그 대학을 골랐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학이 Minnesota대학과 자매결연 비슷한 걸 맺고 있어 어쩐지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간이 툭툭히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지원한 처음의 세 대학(HYP)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지원해 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거의 없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극소수였을 뿐더러, 거의 모두 주립대학 등을 거쳐 그곳으로 간 경우였습니다.

그때 내가 뭘 믿고 HYP를 골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상대 수석졸업자라고는 하지만, 당시만 해도 SNU의 지명도가 거의 없었을 때였는데요.

그나마 여러 대학도 아니고 달랑 4개 대학에만 지원한 것은 만용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요즈음은 20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보통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적은 수의 대학에만 지원한 것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application fee가 부담

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라 그런 비용도 꽤 부담이 되더군요.

미국 가는 비행기 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신 이현재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추천서를 건네주시면서 너무 좋은 대학만 써냈다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신 게 기억이 나는군요.

요즈음 표현을 빌리자면 깡다구로 소신지원을 한 셈이었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말씀 드리건데, 그때는 내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 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 아직도 HYP 지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Minnesota에서 admission이 날아온 겁니 다.

그때까지도 그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내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쾌재를 불 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HYP에서 모두 거부 편지를 받더라도 난 이제 미국 유학 떠날 수 있다."라는 안 도감이었지요.

내 짐작으로 그때 Minnesota대학은 admission을 아주 너그럽게 주는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 다.

그 즈음 그 대학에 간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을 보면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Minnesota대학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지요.)

2월이 되니까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Harvard에서 편지가 왔는데, 지금 너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엔 Princeton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너에게 장학금 지급할 것을 대학 당국에 건의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승인될 것 으로 믿는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 두 편지를 연속으로 받으니 떨 듯이 기쁘더군요.

얼마 후 Harvard에서는 장학금 없이 admission, 그리고 Princeton에서는 full-scholarship을 주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무 소식 없던 Yale에서는 결국 거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Harvard보다 Princeton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장학 금을 준다는 Princeton쪽을 선택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1년 장학금 7천 달러는 작은 집 한 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Harvard라는 이름에 끌리신 아버님은 아쉬우신지 등록금은 내가 대줄 테니 Harvard로 가는 게 어떻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난 단호하게 Princeton으로 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Princeton으로 가기로 결심한 다음 한미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미국 대학들의 선전책자들을 보았습니다.

Princeton대학의 교수 명단을 보니 이름으로만 들던 그 유명한 A. Lewis교수가 계신 것 아닙니까?

조순 선생님으로부터 Lewis교수 얘기를 귀 따갑게 들어오던 터였습니다.

그 분 얘기를 할 때면 조순 선생님은 존경에 가득 찬 표정이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 곳으로 간다니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습니다.

(나중에 Princeton 가보니 그 분은 거의 인정을 받으시지 못하고 계시더군요. 개발경제학이 찬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 분 노벨경제학상 받았을 때도 경제학과에선 아무런 축하행사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Princeton 경제학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명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랭킹을 보면 Princeton이 MIT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10년 정도가 Princeton의 전성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MIT는 언제나 부동의 1위이고 나머지 대학들이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니까요.

하여튼 난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식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명문 Princeton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지요.



요즈음 유학 가는 사람들 거의 20군데나 되는 대학에 지원하고서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은 정보화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유학 갈 당시에는 application fee의 압박도 문제였지만, 한 대학 한 대학 지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 그렇게 많은 대학에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application form을 구하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일일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답조차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국에도 관심이 있어 Oxford와 Cambridge에 원서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원서는커녕 답조차 보내주지 않더군요.

원서를 보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1월 15일을 deadline으로 잡아놓고 있어 연말에 원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요즈음 같은 DHL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연말에는 우편이 폭주해 지연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원서가 잘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이메일이고 뭐고 없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한 대학을 더 지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즈음 학생들 인터넷, 이메일, DHL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 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한국의 위상이 점차 올라가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일류 대학에 한국 학생이 유학 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선배들이 한, 둘씩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들이 성공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음에 따라 SNU도 꽤 많은 대학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분위기 변화의 덕을 본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때 Harvard에서는 나 혼자에게만 admission을 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몇 명이 거기서 admission 받지 못하고 탄 데로 갔으니까요.

가지도 않을 걸 공연히 admission만 날렸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Stanford에서 박사 따고 지금 C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나는 가끔 내가 그때 Harvard로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난 지금의 내 상황에 100%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Harvard로 갔었든들 뭐가 더 좋아졌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Princeton에서 full scholarship을 받게 된 연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Princeton 대학원 프로그램의 director는 M. Rothchild라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정운찬 선배님이 그 분과 마주쳤답니다.

(정 선배님은 당시 논문 거의 다 쓰고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선배님을 보더니 대뜸 너 Joon Koo Lee라는 친구를 잘 아느냐고 묻더랍니다.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 잘 안다고 대답했더니 "자네 그 친구를 위해 추천서를 하나 쓸 수 있나?"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정 선배님이 신나서 추천서를 하나 써서 갖다 드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나에게 full scholarship을 줄까말까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정 선배님 만나 그냥 주어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쓰라고 해서 그걸 핑계 삼아 결정을 내려버린 거지요.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느 학교에서 admission 받고 장학금 받는 거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학 가려고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운에 맡기고 마음 졸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안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내가 Princeton에 full scholarship 받고 간다는 소식이 온 장안에 퍼지고 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렇다 할 경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명문 사립대의 위상이 높지 않아 경쟁은 거의 SNU 졸업생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석 졸업을 했으니 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게다가 TOEFL이나 GRE 점수도 나쁘지 않았구요.

우리 동창생들은 나보다 한참 뒤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늦었지만 그 친구들은 왜 더 늦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모두들 유학을 떠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유학을 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여튼 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유학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full scholarship을 받고 Princeton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건 내 인생에서 만난 여러 행운 중 하나였습니다.

6. 유학 시절

8월 12일 드디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학 가는 게 큰일이어서 몇 십 명이나 되는 양가 일가친척이 모두 김포공항으로 나와 환송해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수십 명이 나왔구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검색대를 향해 들어갈 때 뒤를 돌아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믿지 않으실 테지만 그때 마음속에는 "이 고향산천에 언제 돌아오게 되나."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김상헌 선생이 청나라 볼모로 잡혀 가실 때에 비할 바 없는 것이지만, 나름 비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즈음은 유학 떠나도 방학 때 되면 바로 귀국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 번 떠나면 반영구적으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나도 그때 떠나 박사 따고 교수된 다음, 6년 반만에 고국 땅을 처음으로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애를 둘이나 낳고 나서요.

LA에 내려 집사람 친구 집에서 이틀 정도 머물다가 Newark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날은 무지무지하게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인문대에 계신 김영식 교수가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셨는데, 더운데 미안하다고 말씀 드리니 "왜 이런 날을 골라 왔어?"라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그 덥고 습한 날이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곧 바로 에어컨 있는 자동차에 올라탔는데도 등이 땀으로 흥건히 젖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차로 인해 머리가 뒹뒹한 터에 더위까지 날 괴롭히더군요.

New Jersey Turnpike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Princeton으로 향했는데, 고속도로 연변에 나무가 울창한 것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나무가 울창하다고 감탄을 했더니 김 선배님이 대놓고 비웃으시며 "야, 임마. 프린스턴 들어가 보고 그런 얘기해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그 길 오가면서 왜 그 분이 나를 비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산들이 험벗고 있어서 고속도로 연변의 큰 나무들을 보고 감탄을 했지만, 사실 미국 기준에서 보면 그건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숲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Princeton에 들어가 김 선배님 댁에서 저녁을 대접 받고 나오는데, 마당에 반딧불이가 가득 날아다니더군요.

한국에 있을 때 친구가 한 마리 잡아온 걸 보고 신기해 했는데, 거기는 마당 가득이 빛을 발하며 날아다니더군요.

서울의 콘크리트 숲에서 살던 촌놈이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보니 케감동이었습니다.

밤이라 주위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분위기더군요.

미리 예약해둔 학생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후배 집에서 이틀을 묵은 다음 들어갔습니다.

학생 아파트는 Lawrence라고 새로 지은 곳과 Butler라고 오래 된 두 단지가 있었는데, 나는 값이 싼 Butler를 선택했습니다.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 혼자 예약을 해버렸지요.)

그 아파트는 목조로 2차대전 중 해군장교의 BOQ로 썼던 것을 학생 아파트로 만들었다더군요.

당연히 넓고 허술했지요.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 가스난로를 최대한 켜고서도 다운잠바 입고 지냈을 정도니까요.

여름에는 땀을 줄줄 흘리며 살았구요.

그러나 그 아파트가 장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단층이라 땅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좋았고, 부지런하면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토마토 키워서 따먹기도 했지요.

봄이 되면 우리 집 앞에 탐스럽게 핀 수선화를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구요.

어차피 대학원 생활은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아무 불편 없이 지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가스레인지만 한 대 달랑 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아파트에는 최소한 냉장고, 소파, 세탁기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 보통인데, 거기는 그게 아닌 거였습니다.

(furnished apartment면 웬만한 가구가 다 마련되어 있고, unfurnished라 해도 위에서 말한 것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만해야 할 게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부터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광고 보면서 중고 가구를 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난 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1년 먼저 간 고려대의 김건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냉장고 50달러, 소파, 50달러, 침대로 쓸 매트리스 30달러, 마루에 깔 양탄자 20달러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김건 교수는 내 냉장고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집 냉장고는 공짜로 얻은 것이어서 내것보다 훨씬 더 낡았으니까요.)

그것들을 사놓고 나니 뭔가 갖춰져 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건 교수 집에서 그릇 몇 개를 얻고 가게 가서 사기도 해서 밥 지어먹을 준비도 서서히 갖춰 갔습니다.

살림 전부 장만하는 데 3, 4백 달러 정도 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TV 같은 사치품은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처음 가서 무척 심심하게 지냈을 집사람이 TV도 없이 지내게 만들어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머리가 없는 탓이었지요.

미국 가서 2년만에 흑백 TV 처음 샀습니다.

컬러 TV는 비싸서 살 생각도 못 했구요.

그 흑백 TV도 자발적으로 산 게 아니라 사연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가 쓰던 헌 흑백 TV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된 거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길래 20인치 짜리 흑백 TV를 사들인 거지요.

(그거 1년 동안 잘 보다가 지금 Yale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 Joe Altonji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Princeton 들어가기 며칠 전에 정운찬 선배는 New York으로 떠나셨습니다.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올 것을 알았다면 New York으로 떠나기 전에 가구 같은 것을 많이 남겨주고 떠나셨을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내가 싱글로 오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모두 처분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유학 떠나기 전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느라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국제전화 한다는 생각도 못했을 때라 천상 편지를 써야 하는데 결혼 준비로 바쁜 터에 편지 쓸 여유가 없었지요.

정 선배님이 나를 위해 남겨 놓고 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타시던 (여성용) 자전거 한 대를 나 오면 주라고 김건 교수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그때까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자전거와 씨름 끝에 겨우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나에게 그 자전거는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슈퍼에서 먹을 것 사올 때 싣고 오기도 하고 첫 2년 동안 학교 오갈 때 늘 그 자전거 탔습니다.

자전거 못 탈 때는 Princeton 시내에 들어가 일주일 먹을 식료품을 사서 손으로 들고 와야 했습니다.

들고 간 자루에 넣어 양 손에 들고 그걸로 모자라면 목에다 걸기도 해서 30분 정도 걸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유와 오렌지쥬스를 늘 큰 팩으로 하나씩 사들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무겁던지요.

하도 무거워서 길 옆 벤치에 주저앉아 "내가 왜 여길 왔던고?"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알게 되고, 자전거 뒤에다 짐 싣는 장치를 달고 나니 내 인생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처음에 Princeton 도착했을 때는 공부 걱정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한, 두 달 된 미숙한 가장으로서 정말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Princeton에 온 지 며칠 만에 캠퍼스를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딜 가나 넓은 잔디밭이 있고 유럽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런 건물들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상과대학은 '고대 변소'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종암동 고려대 옆에 있는데 초라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국전쟁 영화 찍을 때 본관 건물을 공산당 당사로 설정했다나요?

그런 데서 공부하다 온 나에게는 캠퍼스 전체가 별천지 같았습니다.

(75년에 관악으로 이사 왔지만, 난 거기서 다녀본 적도 없고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이런 데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서관 앞에 잔디밭이 있어 거기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우리나라 토끼만큼 큰 다람쥐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군요.

미국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놈들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뛰노는 다람쥐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내가 여기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다시 말해 성공적으로 박사를 따고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공부에 대한 걱정이 처음 본격적으로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경제학과가 있는 Dickinson Hall에도 가봤습니다.

돌로 지은 아담하고 고풍스런 건물이었습니다.

경제학과에서 '왕비서'로 통하고 있는 Mrs. June Coleman을 찾아 인사를 했더니 내 메일박스의 위치를 가르쳐 주더군요.

미국 대학에서 경력이 긴 비서는 교수보다도 권세가 더 셉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대학원 생활이 순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찾아가 인사를 드린 거지요.
사실 그 뒤로도 내가 박사 받고 떠나갈 때까지 계속 비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일 박스를 뒤져보니 벌써 노란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후에 안 거지만 경제학과에서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는 늘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냅니다.
거기서 4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편지 술하게 받아 보았습니다.
그거 뜯는 순간 엄청나게 떨리지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편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이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받으면 떨 듯이 기뻐집니다.
반면에 "I am sorry to inform you that"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 메일박스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 편지에는 개강 전 어떤 날 수학시험을 줄 테니 모두 와서 응시하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가 제일 자신 없는 수학시험이라니!
정말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별 수도 없었기 때문에 A. Chiang 책 복습하며 준비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수학시험을 보는 날 나는 일찌감치 시험장으로 들어가 A. Chiang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따지면 날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다른 녀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키가 자그마한 한 꺼병한 녀석이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염을 새까맣게 기르고 어딘가 동양적인 냄새를 풍기는 미국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Syria계 미국인이라 그 친구에게서도 동양적인 냄새가 풍겼던 겁니다.)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군요.
뭐냐고 물으니까 eigen value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하네요.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였지요.
A. Chiang 책에서 내가 이미 읽은 부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푸는 거다. 알겠냐?"
나는 품을 잡으면서 eigen value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요.

그 꺼병한 친구가 나중에 나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된 Joseph Altonji 입니다.
지금 Yale 대학에서 거시와 노동 가르치고 있지요.
얼마 전 학부 게시판에 올라온 세계 유명 경제학자 1,000명의 랭킹을 보니 그 친구가

200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더군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로서는 넘볼 수조차 없는 대단히 높은 순위입니다.

내 어쭙잖은 수학 실력으로 그 친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세계적 대학자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에헴.

수학시험 받아 들고 보니 반은 알겠는데 반은 전혀 모르겠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행렬을 주고 trace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element 모두 더하면 바로 구해지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trace가 뭔지 알 턱이 있나요?

그건 A. Chiang 책에서 내가 읽지 않은 부분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전까지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며칠 후 메일박스에서 노란 봉투를 받아 보았는데, 열고 보니 역시 "I am sorry to inform you that"으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떨어질 줄은 알았지만 막상 그 편지 받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내가 Princeton 시절 "I am sorry to inform you that"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받은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그런 편지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권유에 따라 수학 담당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제학과 박사과정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아직 교수는 안 되었지만 강의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내가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수석이라는 거였습니다.

(내 수석 운은 그럴 때도 발휘되나 봅니다.)

반 정도가 붙었고 반 정도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내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 거지요.

나보다도 수학 더 못하는 놈들이 반이나 된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널 붙여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말하더군요.

왜냐하면 넌 써놓은 답은 모두 맞았는데, 시험의 반 정도를 백지로 냈으니 수학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 Chiang 책에서 내가 읽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다 맞고 읽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백지로 낸 겁니다.

이게 당시의 내 수학실력이었습니다.

해석학이니 뭐니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겨우 미적분과 선형대수 기초만 아는 상태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거지요.

수학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학기 시작하면서 S500이라는 서비스과목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가르치는 경제수학 시간이었지요.

이 강좌 수강생 중에는 앞에서 말한 J. Altonji 가 끼어 있었습니다.
난 55점 맞았는데 그 친구는 35점인가 맞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친구가 나중에 세계적 학자가 되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지요.
미국 애들 중에는 그와 같은 저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좌를 듣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U. Penn교수로 있었던 David Sappington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금은 큰돈 받고 Florida대학으로 스카웃되어 갔는데 산업조직론에서는 대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시험 낙방생 그룹도 나름 꽤 화려했던 거지요.
그 강의 1년 동안 듣고 시험을 쳤는데 Sappington이 1등, 그리고 내가 간발의 차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받은 수학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학 공부를 따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9월이 되고 드디어 본격적인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간 강의는 econometrics 강의였는데, J. Abowd라는 젊은 교수였습니다.
졸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조교로 강의실에 들어갈 때에 대비해 양복 많이 준비해 갔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교수들조차 강의 들어올 때 양복 입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겁니다.
양복을 입더라도 넥타이는 매지 않은 캐주얼한 차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microeconomics는 W. Baumol 교수가 담당했습니다.
경제학과에서 가장 나이가 드신 분 중 하나였는데, 지명도는 꽤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논문 출판 실적만으로 따지면 벌써 노벨경제학상 받았어야 했는데, 어떤 일인지 상복이 지지리도 없는 분입니다.
첫 시간은 '수요'(demand) 한 가지만을 갖고 두 시간 이상을 토론했습니다.
역시 대가의 강의는 다르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 분은 조금 게으르신 편이었습니다.
정운찬 선생님 때는 첫 시간에 수요 얘기 하다가 학생이 잘 모른다고 화내시면서 나가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강의에서 배운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요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우는 게임이론은 '게'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수학도 별로 배운 바 없고, 이렇다 할 이론도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은사님을 홍보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구식으로 가르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나가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에 젖어 있는 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미국 친구들은 배우는 게 없다고 대놓고 불평을 하더군요.

가끔씩 대가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macroeconomics는 운이 더 나빴습니다.

그 강의를 주로 맡으시던 A. Blinder 교수가 연구원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Yale에서 갓 박사를 딴 M. Gersovitz라는 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솔직히 말해 대학원 가르칠 수준이 아니셨습니다.

수업 중에 우왕좌왕하기 일쑤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교수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배울지 모릅니다.

교수와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처럼 실력 없는 학생은 교수가 무엇이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강의할 때 전혀 우왕좌왕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빠져리게 느낀 바 있어 그런 강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분은 나의 좋은 반면교사 역할을 하신 셈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에 어려운데, 교수가 잘 가르치지 못하니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분들을 만났더라면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2학기의 교수진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best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다음 학번의 화려한 진용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진용이었습니다.

이름만 Princeton이었지 실속으로 따지면 웬만한 주립대학만도 못한 진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우리 학번은 운이 아주 나빴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학번에서 스타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0명 가량이 들어와 결국 15명에서 20명에 이르는 사람이 박사를 땀습니다.

그 중 6명이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아는 스타급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J. Altonji도 그 중의 하나이구요.

어느 유명 대학의 어떤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 공부는 결국 학생 본인이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교수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최고 수준의 학부 강의를 제공되는데도 세계적 수준의 학자가 배출되기 힘든 것도 이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동경대에서는 거의 매년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묻는 사람이 많지요.

물론 동경대 교수진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화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학생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머리가 모자라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한 우리 교육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대학원 1학년 때의 나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 인생 어떤 때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잠 자고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공부에 100% 올인했습니다.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다면 당연히 결과가 좋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때의 나는 결코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방식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내 공부 방식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공부에도 적당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암기 위주의 학점 따기 공부에만 익숙한 나였는지라 대학원 공부의 방식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누가 그걸 가르쳐 준 바가 없었고, 미국에서 모범을 보일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reading list를 받으면 무조건 밑줄 치면서 모두 다 읽는 전법을 썼는데, 사실은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걸 몰랐으니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에서 쓰라림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대학원을 다니면 이번에는 멋지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테지요.

다만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피로에 지쳐 쓰러졌던 일입니다.

Princeton은 한 학기가 12주인데 6주 공부하고 1주 동안 중간 방학이 있습니다.

학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1주일 7일을 내내 공부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혀 휴식 없이 1주일 내내 공부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reading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나보다 1년 먼저 유학 온 고려대의 김건 교수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경고를 했습니다.

"적당히 쉬어 가며 공부해라.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난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휴식 없는 강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중간 방학이 시작되는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어슬어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앉아 있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30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서 돌아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나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이틀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건 군이 충고한 대로 금요일 오후만이라도 쉬었으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
군요.
그 동안 금요일 오후를 쉬지 않아 6주 동안 3일분의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날려 버린 시간이 이틀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공부해 별로 이득이 없었던 셈입니다.

그 후 나는 일주일에 6일 반을 공부하는 스케줄로 바꿨습니다.
즉 한 주의 수업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는 철저히 쉬면서 노는 스케줄로 바꾼 것입니다.
그 덕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시시한 감기도 걸린 적이 없이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센스 있게 공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10월 말쯤 도서관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어느 한 일요일 아침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12시가 가까워 오길래 점심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걸린 시계는 11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내 손목시계를 보았으니 역시 12시 근방이었습니다.
내가 시계를 만진 적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도서관 정문 부근으로 가서 다른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 역시 11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 공부를 너무 한 나머지 내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 가는구나."
즉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간이 1시간이나 틀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11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summer time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습
니다.
그 날 summer time이 해제되어 한 시간을 늦추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난 그걸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도 읽지 않고 집에 TV도 없었으니 알 턱이 없었지요.
나중에 TV 사고 보니 summer time이 시작되거나 해제되는 날 즈음에서는 뉴스 시간에 몇 번
이고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그때는 TV를 전혀 보질 못했으니 깜깜 무소식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 머리에는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

그 해 11월에 또 다시 노란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편지가 "I am pleased to inform you....."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주임교수로부터 온 편지인데, 나에게 'readmission'을 주도록 대학 당국에 추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다니는 학생에게 '재입학'이라니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Princeton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다닐 때는 대학원 들어오는 학생에게 단 1년만의 admission을 주
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 갱신을 하듯 readmission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식행위에 그쳐 모두에게 readmission을 주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친구들 몇 명은 대학원 주임교수가 readmission 추천을 해주지 않아 불안한 상황에서 대학
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추천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식
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다행히 나는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주임교수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구분했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1학기 기말시험도 치르지 않은 시점이라 성적이란 뭐든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
이었는데요.
그리고 주임교수와 대면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스펀지를 풀어놓았는지 용케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
별하긴 했습니다.

아 참, 영어 강의에 관한 내 경험을 얘기해 줘야 하겠군요.
영어를 비교적 잘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도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거시의 M. Gersovitz 교수처럼 영기는 경우에는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었
습니다.
반면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강의할 때는 영어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얻은 결론은 강의를 알아듣는 정도는 영어 실력에 달려 있다기보다 경제학 실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어 실력이 웬만큼 좋아도 모르는 내용을 강의할 때는 알아듣기가 아주 어렵다는 말입니
다.
반면에 내가 아는 내용을 강의할 때는 알아듣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의할 부분에 대한 reading을 미리 해놓아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 두고 있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Harvard Business School에 2년째 다니고 있는 친구가 날 찾아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영어 강의 알아듣기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말이 어느 시점에 가면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영어 강의가 아주 잘 들린다구요.

그래서 난 “그런 경험을 언제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김진 교수 집에 놀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에 TV가 없어 그 집에 가서 잠깐씩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Yankees 게임도 그 집에서 주로 보았지요.

그 날은 대통령 선거 토론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G. Ford와 J. Carter가 TV 앞에서 맞짱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뚜렷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TV 볼 때 대충 알아들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토론은 마치 우리말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뻥 뚫린다는 것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2학기가 되면서는 강의 알아듣는 데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영어 실력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강의 잘하는 교수 덕을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거시 D. Jaffee교수(정운찬 선생님의 지도교수)의 성장이론 강의는 휘파람 불며 들었습니다.

박성용 박사님의 특강 덕분에 성장이론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그 분의 강의가 특히 명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학기에 들어가면서 preliminary general exam(prelim)의 압박을 슬슬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사학위 받으려면 1학년 말에 미시, 거시로 구성된 prelim을 통과해야 하고, 2학년 때는 전공 필드 3개로 구성된 general exam을 통과해야 합니다.

general exam 끝내지 못한 학생을 pre-general 이라고 불러 교수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낸 post-general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주로 걸러내는 것은 prelim이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여유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내가 가장 많이 다닌 길은 경제학과가 있는 Dickinson Hall에서 교회 담장을 끼고 중앙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늘 강의실과 도서관을 시계추처럼 오가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3월 어느 날 교회 담장 옆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샛노랗게 만개한 수선화가 눈에 띄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난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추위를 뚫고 나온 수선화의 싹을 놓쳤을 리 없었습니다.

싹이 나와 큰 잎이 되고 꽃봉오리가 맺힌 다음 노란 꽃으로 화려하게 개화하는 과정을 매일 관찰하며 다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도 여유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과정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노랗게 만개한 수선화 꽃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동안 얼마나 여유 없는 생활을 해왔으면 그랬겠느냐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글퍼지더군요.

미시가 특히 걱정이었는데, 2학기에 배운 일반균형이론에 수학(해석학)이 많이 나와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증명을 암기로 해결하려는 무식한 전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응용문제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거시는 그런 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내가 미시를 가르치는 게 조금 역설적이지요?

5월로 예정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는 하지만 좀체로 숙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군대 있을 때는 눅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지곤 했는데요.

(그때 이후 내 잠버릇이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아직까지두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새 한 잠도 못 잤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이 벌겍게 충혈이 되어 있었지요.

선배님 한 분이 나를 보더니 수면제를 먹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만은 꺼려져서 그냥 버텼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미시는 걱정하던 수학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직관적인 답을 내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하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energy efficient ca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다른 차에 비해 효율성이 좋은 차로 해석을 한 겁니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비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을 쓴 거지요.

정답을 내려면 그걸 소형차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미국이나 미국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역을 종종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벌 세대인 여러분은 이해하기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시험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니다.

오자마자 집사람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이서 라면을 나눠 먹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홀가분한 심정과 꿀맛 같은 라면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학입시 때도 그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만도 했습니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초라하게 돌아가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온 식구들의 성대한 환송을 받고 떠난 내가 그런 초라한 차림으로 돌아가서야 쓰겠습니까?

세 문제를 답해야 하는데 하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썼으니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시, 거시를 동시에 패스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 두 과목 모두 혹은 한 과목을 불합격해 10월에 재시험을 쳐야 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아예 재시험 기회를 주지도 않더군요.

아까 말씀 드린 readmission을 받지 못한 학생이 주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바로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른 명으로 시작한 우리 클래스는 prelim과 general에서 6, 7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더군요.

시험에 떨어져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학생 중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2년 후배인 한국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나와 그 두 사람이 입학했더랬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매우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반장도 하고 공부도 아주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험에 떨어졌는데, 재시험의 기회도 안 주더군요.

평소에는 친근한 미소를 잘 짓던 주임교수가 냉정하게 거절하더랍니다.

나를 끔찍히 따르던 후배를 돌봐 주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가 떠나면서 나는 졸업할 때까지 경제학과 유일의 한국 학생으로 생활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해에 홍익대학교의 김종석 교수가 신입생으로 들어오더군요.

prelim에 합격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 다음 해의 general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prelim에 붙으면 교수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곧 시작된 여름방학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 때문에 크게 쪼들려 산 기억이 없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첫 해를 그런대로 무사하게 넘긴 것이지요.

♫♫♫

prelim을 끝내고 맞은 여름 방학에서 모처럼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원래는 며칠만 쉬고 다시 강행군을 계속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님의 충고를 듣고 조금 여유를 즐기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님이란 Princeton에서 만난 또 한 분의 mentor로서 몇 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입니다.

임 선배님은 내 고등학교 3년 선배로 자칭 경기고 깡패입니다.
고등학교 때 역도반 활동을 했고 교내 육체미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다고 합니다.
태권도도 잘 하시고, 한 마디로 사나이 중의 사나이였습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용모도 꽤 준수하셨습니다.)
서울공대 건축과를 마치고 Harvard 건축과에서 석사를 탄 후 Princeton에 와서 urban planning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Princeton 갔던 첫 해는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 분과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prelim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서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 분은 보스 기질이 강해 후배를 아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나와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와 논문 하나를 공저하기도 했지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Princeton의 행정대학원인 Woodrow Wilson School에서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Michigan State에서 학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논문만 많이 쓰신 게 아니라 리더십도 출중해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 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학계의 큰 별이었지요.
사회활동에도 열성적이셔서 우리나라의 시민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그 분은 대통령 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으셨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본 그 분의 작고 소식을 접하고 나는 놀라 자빠질 뻔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통사고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의료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애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분에게 받은 영향이 너무 커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무언지 얘기할 차례군요.

나는 그 분에게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그 동안 밀렸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분은 손을 내저으며 "준구야, 너무 욕심 내지 마라. 하루에 다섯 시간만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라. 그게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루에 다섯 시간이라?

이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하루 15시간을 공부했는데 다섯 시간이라면 아무 것도 아닐 테니까요.

"다섯 시간이야 문제없지만 정말 그것만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지요.

"야, 임마. 내 말만 믿어. 다섯 시간만 충실히 해도 방학 끝나고 나면 공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야."

이 말에 힘을 얻어 여유 있는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이 나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학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바로 그 방학 때 재정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맞았지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재정학을 전공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니다.

화폐금융론이나 경제발전론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재정학 다운 재정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던 처지였지요.

재정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전공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나는 소득분배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재정학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Musgrave & Musgrave의 재정학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에서 표준적인 재정학 교과서로 널리 읽히던 책이었습니다.

읽어 보니 과거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재정학의 많은 개념들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재, 조세부담의 귀착, 초과부담 같은 재정학의 핵심 개념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었지요.

그 책을 읽고 나니 눈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재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general exam에 전공분야 세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나는 public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s, 그리고 economic development를 선택했습니다.

public finance는 R. Gordon이란 젊은 교수와 W. Oates 교수에게 배웠습니니다.

두 분 모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nternational economics는 조금 운이 나빴습니다.

그 즈음 Columbia에서 R. Findlay라는 국제무역이론의 거물을 스카웃 해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나는 내심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스카웃이 실패로 돌아가고 박사를 갓 딴 젊은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2학기에는 P. Kenen이라고 나름대로 거물이 가르치셨는데, 그 분은 자기가 집필하고 있는 책 위주로 가르쳐 내용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e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기회는 주지 않고 자신의 모형만 가르치시니 영 답답했습니다.

economic development는 A. Lewis라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가르치셨으니 최강의 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분은 이미 노쇠하셔서 정력적으로 가르치시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분은 경제발전론 중에서도 old guard에 속하셔서 새로운 이론의 흐름에는 조금 둔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2학년 때의 생활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이제 1학년 때의 비장한 감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훨씬 수월해져 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주일에 6일 반을 공부하는 스케줄만은 충실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최후의 관문인 5월의 general exam을 향해 착실히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똑한 학생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함에서만 인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스타 의식을 갖고 살아오던 나에게는 잔인한 현실이었지요.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엔 달리 방법이 없더군요.

♪♪♪

1978년 5월 드디어 박사과정 최대의 관문인 General exam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전공분야에서 시험을 치는 것인데, 난 public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s, development economics를 선택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되긴 했지만 1년 전 prelim을 칠 때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험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난 세 과목을 모두 무난히 패스했습니다.

합격했으면 되었으니 성적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떨어진 동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방학도 반납하고 10월에 있을 재시험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떨어진 내 친구 중 운이 정말로 나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부는 Berkeley 나왔는데 늘 히피처럼 꿈지머리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날라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력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수학을 아주 잘해 mathematical economics를 전공으로 선택하려 했나 봅니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받더니만 "Jesus Christ!"라고 장탄식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짐을 싸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떨어졌지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그 친구가 mathematical economics를 수강할 때는 Harold Kuhn 교수가 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Kuhn-Tucker theorem을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Kuhn 교수가 출제를 할 줄 알고 거기에 대비를 했지요.
그런데 시험 즈음에 Kuhn 교수가 출장을 갈 일이 생겨 다른 사람이 그 과목을 출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mathematical economics는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수학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때 Hugo Sonneschein이란 교수가 그 과목을 대신 출제했는데, 내 친구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풀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Kuhn 교수에게 내 친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는 몇 번이나 사과하고 10월 재시험은 자신이 직접 출제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Kuhn 교수는 또 출장을 갔고, 결국 그 친구는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시험 끝난 바로 다음 날 짐을 챙겨 어디로 떠나 버린 모양입니다.
그 후론 그 친구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박사를 따려면 운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나쁘면 그 친구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듯 난 처음 가서 치른 수학시험에서 "I am sorry"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각종 시험, 그리고 잡다한 requirement와 관련해 술한 노란 봉투를 받았는데, 운 좋게 모두 "I am pleased"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 봉투가 나쁜 소식을 전해 주는 첫 편지였자 마지막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General도 끝냈으니 더 이상 받을 노란 봉투도 없었습니다.
논문만 쓰면 되었으니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내가 그 세 전공과목 중 학점을 딴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청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Princeton 있을 때 학점 따고 들은 과목이 통틀어 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청강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우습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시 Princeton대학이 채택하고 있었던 liberal한 학사관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규정이 전혀 없었지요.

청강을 하든 학점을 따든 상관하지 않고 시험만 패스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학한 제자들 중 coursework때 학점 아주 좋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쓴 웃음을 짓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학점 같은 것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요.

박사과정 학생에게 학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점 기계들인 우리나라 학생들만 학점 갖고 난리를 치지요.

하여튼 이 liberal한 시스템 때문에 입학한 지 1년 반만에 박사 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천재는 지금 Princeton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된 나는 처음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신혼의 재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부에 매달려야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나야 공부에 매달려야 했으니 심심하다고 느낄 틈도 없었지만, 집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마침 U Penn 경제학과에 다니는 선배로부터 캐나다 여행을 가지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 분은 내 고등학교 3년 선배이자 상과대학 조교였던 분인데, 어찌하다 내 군대 졸병으로 들어왔습니다.

군대 동기였던 사회학과 출신 선배가 당시 Toronto에 살고 있었는데 거길 함께 놀러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난 당시 운전할 못해 그 분 부부가 운전하는 차에 free riding을 해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본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Niagara 폭포, Toronto, Montreal, Quebec city, Thousand Island, Boston 등 여러 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Cornell, Harvard, MIT 등의 대학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행 때 기억이 머리에 생생합니다.

내 유학생활 중에 그렇게 즐거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늘 고생만 하고 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해 여름 방학 때 최대의 과제는 논문 주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별로 없었지만 소득분배에 대해 쓰겠다는 생각은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성장제일주의 정책 때문에 분배의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이 자연히 그 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지요.

또한 Roger Gordon 교수의 재정학 강의 때 들었던 '분배에서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 논의가 매우 감명 깊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분배에서의 정의라는 개념은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걸 배우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그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지니계수상으로 보면 모범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 국민은 분배상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분배에서의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탓에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도해줄 교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Alan Blinder 교수를 만나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분은 거시경제학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 당시 케인지언과 시카고학과 사이에 재정정책의 crowding-out effect에 관해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케인지언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논문을 써서 학계의 관심을 끈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분도 박사논문은 분배문제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MIT press에서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분을 지도교수로 모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실 그 분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만나 뵈고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니 선뜻 승낙하셨습니다.

만약 그 분이 거절하고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부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승락을 하시더니 갑자기 "자네는 운이 참 좋은 친구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즈음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라는 잡지에 소득분배이론에 대한 광범한 서베이 논문이 출판된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기 전 우선 literature survey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자신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서베이 논문이 나온 직후에 박사논문을 쓰게 되었으니 노력이 크게 절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논문 뒷부분에 나온 논문 리스트를 보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즈음은 Google Scholar를 이용하면 웬만한 논문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에서 일일이 저널을 찾아 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논문들 모으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논문들을 읽는 시간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교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네 perfect capital market에 기반한 모형을 세우려 하느냐 아니면 imperfect capital market에 기반한 모형을 세우려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어안이 빙빙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서 나는 무슨 모델로 논문을 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perfect capital market을 가정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때는 imperfect capital market에 기반한 모형을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색을 하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논문의 윤곽이 잡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불완전한 자본시장이 개인의 일생에 걸친 자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분배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본다는 기본 전략이 수립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도교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와도 같은 기법을 통해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향으로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논문을 쓸 때 그리 큰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빠른 페이스로 글을 써나갔고, 지도교수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포진해 계시니 어느 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optimization model에서 내가 세운 모형이 constraint qualifications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답을 구한들 헛수고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진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세계 제1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Harold Kuhn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 분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한 결과 constraint qualification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오는 순간 땀 뚝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고비를 넘긴 셈이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세운 모형으로 simulation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도교수께서 Robert Quenne 교수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분을 찾아가 말씀 드렸더니 두말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하나를 건네 주셨습니다.

(그때는 카드를 일일이 쳐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대였습니다.)

천 장 정도의 카드로 구성된 그 프로그램은 미사일이 적절한 탄도를 그리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내 목적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분은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단지 경제학과 학생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 중요한 프로그램을 건네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 분에게 제대로 감사 표시도 못했지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나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주요 부분을 3년차에 거의 마쳐야 했습니다.

그 당시 Princeton대학 경제학과는 4년 안에 박사학위를 따서 학교를 떠나도록 독려했습니다.

(지금은 6년, 7년씩 시간을 끌어도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4년이 넘으면 장학금도 끊고, 주거도 제공하지 않고, 컴퓨터 센터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 거지를 만들어 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4학년이 되자마자 job market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4년이 끝난 시점에서 교수가 되어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job market에서의 유일한 평가기준은 얼마나 좋은 논문을 썼느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점은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job market에 들어가기 전에 논문의 기본골격을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논문의 진도가 지지부진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3년차에 논문의 주요 부분을 거의 완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년차 1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비로소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학년 여름방학 때의 대륙횡단 기차여행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로 고생스러웠고 동시에 흥미진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논문의 기본골격이 점차 잡혀가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아 대륙횡단 여행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돈이 많았다면 비행기 몇 번 타면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학원생에게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지요.

하나의 대안은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하는 것인데, 250달러 주고 산 차라 어디서 고장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Nevada 사막 같은 황막한 곳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생명마저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운전이 자신이 없어 자동차 대륙횡단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대안이 기차로 대륙을 횡단하자는 거였습니다.

Amtrak이라고 미국의 가장 큰 기차회사가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 탈 수 있는 표를 팔았습니다.

그걸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각 구간마다 예약을 해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씨름을 한 끝에 간신히 대륙을 돌아 집까지 오는 기차편의 예약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여행구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local line을 타고 New Jersey의 수도인 Trenton까지 갑니다.

그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단거리 여행입니다.

Trenton에서 Amtrak을 타는데, Los Angeles까지 72시간 걸립니다.

Los Angeles에서 며칠을 구경하고 쉰 다음 San Francisco로 가는데, 그때 소요되는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 자동차로 가는 바람에 기차를 타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San Francisco에서 Chicago로 가서 친구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48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Chicago에서 Trenton 구간인데, 여기에는 18시간이 걸립니다.

부푼 마음으로 Princeton을 떠나 한 구간에 며칠씩이나 걸리는 기차여행에 몸을 맡겼습니다.

Los Angeles까지 내리 3일을 달려가는 코스였지만, 침대차는 아니었고 비행기처럼 뒤로 제껴지는 좌석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물론 식사도 모두 기차 속 식당에서 해결해야 했지요.

거기서 파는 햄버거나 핫도그는 정말로 맛이 없더군요.

더군다나 사흘을 똑같은 메뉴로 때워야 하니 고생이 심했습니다.

더욱 불편한 건 화장실과 세면대였습니다.

기차 속에 있는 게 오죽 하겠어요?

그래도 기차는 광막한 대륙을 잘도 달렸고 우리는 낮선 풍경을 보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거기서 미국 사람들 많이 사귀었는데, 무척 서민적이더군요.

기차로 그 긴 여행을 할 정도면 그리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테고, 그래서 더욱 서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루 동안 함께 여행한 할머니 짐을 내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여행하셔서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팁이라고 2달러인가를 내 손에 쥐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거 사양하느라고 혼났습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도 신세 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팁을 주나 봅니다.

그런데 Arizona 부근에 갔을 때 기차의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밖의 온도는 40도 가량 되었던 것 같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니 정말로 죽을 지경이더군요.

찬 물이라도 마시면 좋을 텐데, 물 기계의 냉각기능이 고장나 미지근한 물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창을 열고 달렸는데 밖에서는 후끈후끈한 바람만 밀려들어오더군요.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참아내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승무원 죽인다고 난리를 쳐댔을 텐데요.

드디어 기차가 California로 들어갔고 밖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사막 같은 곳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나무가 제법 푸른 경치로 바뀐 것입니다.
그제야 좀 살 것 같네요.

Los Angeles에 내려 친구의 안내로 호텔에 여장을 풀었는데, 그때 샤워의 시원한 맛을 아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흘 동안 씻지도 못한 채 땀 흘리고 왔으니 얼마나 찢찢했겠습니까?

변호사인 내 친구는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줬고 San Francisco로 올라갈 때는 자기 자동차를
빌려 줬습니다.

우리가 몰고 올라가면 며칠 후 비행기 타고 거기 와서 픽업해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강권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광활한 California를 자동차로 종주하니 기분이 날라갈 것 같았습니다.

California에는 여기저기 좋은 데가 지천으로 깔려 있더군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비치들도 많구요.

그런데 판단 착오로 Route 1 이란 해안도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식한 짓을 한 거지요.

당시는 운전 시작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낯선 곳에서 운전하려니 더욱 어려웠지요.

그런데 Route 1은 해변가의 깎아지른 낭떠러지 위로 난 왕복 2차선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집사람은 경치가 좋다고 탄성을 지르는데, 운전대를 쥔 나는 옆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아?"라는 질문을 연발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겹이 나서 미적미적 대고 있으면 뒤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꼬리를 물며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악전고투 끝에 Monterey 부근에 도달하니 조금 길이 좋아져 살만 하더군요.

그래서 난 지금도 Monterey를 좋아합니다.

죽다 살아난 시점에서 만난 도시니까요.

Route 1 에서 겪은 또 하나의 어려움은 가솔린이 다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가 도통 보이지 않
아 애를 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미국에서도 홀짝제 주유를 실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즉 하루는 홀수 번호를 단 차, 그리고 다음 날은 짝수 번호를 단 차가 주유를 할 수 있는 시스
템이었습니다.

나는 홀짝제 때문에 가솔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Route 1 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는 아무리 달려도 주유소의 그림자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솔린이 딱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때는 휴대폰이고 뭐고 없던 시절입니다.

오도가고 못하고 거지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마침 길옆에 작은 마을이 보이길래 거기 가서 간신히 주유를 했지만, 그 생각 하면 아직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Sna Francisco에서는 Stanford 다니는 친구 집에서 며칠 쉬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줄지어 서있는 Stanford대학 진입로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Berkeley도 잠깐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든 Stanford든 자세히 관찰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뒤에 Berkeley는 며칠 묵으면서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Stanford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거기서 Chicago로 떠나는 기차를 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출발할 생각을 않는 겁니다.

다섯 시간쯤인가 뒤 오후 늦게 출발했는데, 자고 일어나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10시간이 연착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출발할 때 연착한 것을 만회했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연착시간이 더 길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단 늦은 기차는 계속 뒤로 미루고 정시에 가는 기차 위주로 운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더군요.

Chicago 역에서 우리를 마중해 주기로 약속한 친구 걱정이 되어 죽겠더군요.

역무원에게 전화 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어찌 된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48시간에 갈 수 있는 구간을 71시간이나 걸려서 갔습니다.

기차 속에서 만 하루를 더 있었던 거지요.

미국은 워낙 나라가 커서 연착을 해도 무지막지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네요.

젊었으니까 그런대로 버텨 냈지 지금 같아서는 까무라쳐 버렸을 겁니다.

다행히 내 친구에게는 연락이 잘 되어 우리 기차가 도착할 때에 맞춰 마중을 나와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할 때 내가 함을 저줄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이국땅에서의 해후가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그 친구 집에 머물면서 대학, 박물관, 미시건 호수 등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여행 구간인 Chicago-Trenton은 불과(?) 18시간 짜리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며칠씩 기차 여행을 하고 온지라 하루도 채 안 되는 여행은 새발의 피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렇게 20 여일 동안 대륙횡단 여행을 끝내고 Princeton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하고 포근한 Princeton이 너무나 좋더군요.

그 여행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고생은 많았지만 젊었을 때는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와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해보기를 권하고 싶군요.



1979년 9월 4년차에 들어가자마자 job market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박사를 따자마자 대학을 떠나 취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논문의 진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나는 논문의 기본 골격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경제학과 사무실에는 미국경제학회가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Job Openings for Economists* (JOE)라는 잡지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대학이 어떤 분야의 신규 교수를 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자신의 분야를 채용하려 하는 대학에 편지를 보냅니다.

난 약 40통 내지 50통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리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들에서 답장이 옵니다.

그해 연말에 Georgia의 Atlanta에서 미국경제학회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자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미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다음 해의 채용을 위한 인터뷰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박사들이 도매금으로 팔려나간다는 뜻에서 그것을 'Ph. D meat market'(박사 인육시장)이란 잔인한 이름으로 부르지요.

내 1년 선배인 일본인 학생은 그 전 해에 불과 두세 개 대학에서만 답장이 와 실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나도 얼마나 많은 대학에서 답장이 올지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개 대학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런대로 꽤 좋은 성과였습니다.

우리 경제학과에서는 특별 세미나를 열어 우리들에게 발표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방문해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리 대비할 기회를 주자는 거였지요.

그 행사는 마치 리허설을 해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졌습니다.

각자 발표를 마친 후 우리들끼리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2월 말 경 드디어 Atlanta로 떠났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나에게 연락한 대학의 대표단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 시간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하루에 여섯 대학의 사람들을 만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면담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미리 짐작해 보고 나름대로의 답을 연습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드디어 SRI International이란 연구기관을 시작으로 긴 인터뷰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내가 면담한 유일한 연구소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학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긴장한 가운데 여기저기 돌며 모든 인터뷰 일정을 끝냈습니다.

인터뷰를 모두 끝내고 호텔 방으로 돌아오니 갑자기 피곤이 밀려오더군요.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워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장면에서 공연히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홀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마 감정이 극도로 피곤해져 있었던 탓이었나 봅니다.

Princeton으로 돌아와서는 세미나 초청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할 때 나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쓴 대학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순전히 제스처였습니다.
미국인 특유의 친절하 표정과 어법에 속은 거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세미나 초청은 좀체로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월 중에는 소위 first round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는 각 학교의 스타급 학생들이 휩쓸고 다
녔습니다.
예를 들어 MIT의 스타급 학생이라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게 거의 분
명합니다.
그 사실을 주립대학 측에서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학생을 놓치기도 싫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그 학생을 불러 세미나를 시킨 다음 교수로 오라고 offer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 학생도 그런 대학은 안 갈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일을 위해 offer를 받아 놓고 있는 거
구요.

유학을 갈 때 매년 스타급 학생들이 가지도 않을 대학의 admission을 몇 개씩이나 께차고 있
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job market에서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 스타급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offer를 받으면서 주립대학 같은 곳에서 받은
offer를 거절하는 편지를 냅니다.
그러면 비로소 second round가 시작되고 스타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
다.
주립대학들은 이제 스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기네 학교 올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
니다.

나는 쑥맥이라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스타급 학생들의 진용이 이미 짜여져 있더군
요.
교수들도 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구요.
그때가 되면 친분이 있는 교수들끼리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너희 학교 이번 졸업생 중 게임이론에 쓸 만한 친구 나왔냐?"
"너희 학교 거시분야에서 넘버원이 누구냐?"
이런 활발한 정보 교환은 주로 스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진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 채용된 사람이라고 보

면 됩니다.

결국 나는 SUNY Albany, UC Davis, USC 세 곳에서 세미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Albany에 가니 그때가 2월인데 눈이 많이 쌓여 있더군요.

솔직히 말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윤관구 교수라는 분이 계셔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점이었습니다.

(그 분은 내 고등학교, 대학교 5년 선배님이셨습니다.)

California로 날라가 그 두 대학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서부의 화창한 날씨가 나를 황홀하게 만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 온 동부는 아직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서부로 와 보니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었고 새들이 요란스럽게 지저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 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나는 좁고 눈 많이 오는 Albany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만 offer가 왔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경제학과 학과장에게서 offer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는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곳은 Princeton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 학생 생활을 청산하고 교수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군대에서 34개월을 보내고 은행에서 다시 1년을 보낸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 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상당히 빨리 만회한 셈입니다.

4년만에 학생을 쫓아내는 Princeton의 정책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내가 Albany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1980년 9월에 나는 아직 박사 논문 defense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사학위 따지 않은 상태의 졸업생을 교수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ADB(All But Dissertation)라고 불렀는데, 나도 그런 자격으로 교수 가 되었습니다.

논문 defense는 한 달 후인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4년 1개월만에 박사학위를 딴 셈이니까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편이었습니다.

논문의 질이 별 볼 일 없었으니, 박사 빨리 딴 것으로라도 자랑거리를 삼아야 하겠지요.

논문 defense를 끝내고 나니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까지 변함없이 나를 응원해 주었던 집사람, 그리고 부모님께 조금은 보답을 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 혜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애에게만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defense를 끝내고 나오는 순간에는 그 동안의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어린 Princeton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면서 지난 4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한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나는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Princeton에서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은 그저 원론 수준의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수학이나 통계학은 깜깜절벽인 상태로 박사과정에 도전했던 겁니다. 요즈음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지요. 첫 1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공부 따라가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때 난 잠자고 밥 먹는 데 쓰는 시간만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부어넣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14시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Princeton에 오든 누가 거길 떠나든 난 그런 데 상관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인간관계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나를 예의 없는 친구라고 때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업이 없을 때 주로 시간을 보낸 곳은 중앙도서관 지하실에 있는 carrel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벌집처럼 조그만 공간을 수없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그걸 하나씩 배정해 줍니다. 2인 1실 체제로 운영되는데 내 룸메이트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독차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책상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속에서 책 읽다 나오면 눈이 침침했습니다. 그 침침한 눈으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2년차부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의 나는 노력파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요령껏 공부하는 타입이었지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타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다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노력파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존 그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그런 변신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때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절이 나를 뿌듯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후로는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지런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을 뿐 주위로부터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 대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라면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호언장담하던 나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공부란 게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준비도 준비려니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점도 절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식하게 점수 따기, 학점 따기 위주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공부 습관은 대학원에서의 공부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공부라면 무서울 게 없다는 내 자만이 사실은 우물 안 개구리의 만용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내 개인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끄는 바에 충실히 따른 결과가 바로 그거라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내가 보기에 학교 다닐 때 운동하던 사람들이 유학 와서 의외로 좋은 성과를 올리는 r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대한 정열이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공부에 대한 정열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율적인 공부,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 반복 학습, 단순 암기 - 이런 것들이 공부에 대한 정열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 나 자신 지금까지 공부가 재미있어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Princeton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몇몇 스마트한 미국 학생의 경우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족탈불급'(足脫不及)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미국의 유명 대학에 유학 가서 보면 한 클래스에 그런 학생이 서너 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스타 교수가 되는 겁니다.

L. Summer나 P. Krugman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한국에서 웬만큼 준비를 하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천재 보면 주눅이 들게 마련이지요.

그런 애들 보면 미국 교육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녀석들 전반적으로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 극소수의 천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무사히 박사학위를 마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유학 간 사람들은 박사학위 따고 금의환향 하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떠났습니다.

스타가 된대거나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박사 못 때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ceton같이 딱딱한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아 박사를 딴 것이 나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다만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좋은 논문들을 쓸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뿐 아니라 우리 세대 모두의 공통된 비극입니다.

우리 세대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성공적으로 박사학위 따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직 얻어 몇 년 간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뻗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세대마다 주어진 임무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학부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느낀 바지만 우리의 대학 교육은 세계 수준에서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생님들이 능력이 모자라서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유학 가서 성공적으로 박사를 받고 돌아온 것은 그 분들의 은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세대가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비로소 학부 교육이 세계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 나온 사람이 어느 대학으로 유학을 가든 최소한 coursework에서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학부 교육이 그만큼 충실했으니까요.

나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임무를 나름대로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좋은 논문을 많이 써서 우리 경제학계의 위상을 높여줄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7. 교수 시절

1980년 7월 가족들을 이끌고 정들었던 Princeton을 떠나 New York주의 Albany로 이사했습니다.

자동차로 너댓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 스테이션 웨건에 이삿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워낙 가구 같은 것 별로 없이 살았던 데다가 대부분 처분했기 때문에 가져갈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에 싣고 보니 짐이 넘쳐 모두 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속에 미처 싣지 못한 짐은 차 지붕 위에 싣고 노끈으로 댕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보스니아 피난민 차림 같았겠지요.

그 자동차는 General exam 끝난 직후 본국으로 떠나는 내 친구에게 250달러를 주고 산 겁니다.

내가 샀을 때 17만 킬로미터를 뛰어 80살 먹은 할아버지 같은 차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2년 쓰는 동안 별 탈 없이 내 발이 되어준 고마운 차입니다.

스테이션 왜건이라 냉장고까지 실을 수 있어 동네 이삿짐 센터 노릇도 했습니다.

Princeton 학생 중 내 차 덕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Albany에 온 직후 교수 체면을 고려해 2,500 달러 짜리 차(Mercury Montego)로 교체했지요.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Princeton처럼 좋은 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Princeton 마을이 좋기는 합니다.

인구 5만 정도의 조그마한 마을이라 언제나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밤중에도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Harvard나 Yale, 특히 Columbia나 U Penn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지요.

봄에는 딸기 밭에 가서 딸기 따오고 가을이면 과수원에 가서 사과도 따올 수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Albany로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lbany는 New York주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70만 정도라 웬만한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위치한 교외의 Guilderland라는 곳은 Princeton 이상으로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 너른 골프장이라 늘 푸른 잔디를 보며 오갔습니다.

부근에는 좋은 공원도 있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과 과수원을 찾아가 마음껏 사과를 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9월이 되자 학기가 시작되고 영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리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노트를 철저히 준비해 가야만 했습니다.

요즈음도 내 강의노트는 동료들 사이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강의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버릇 덕분에 책 쓰기가 쉬웠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에는 내가 평소 쓰던 노트에 약간의 살만 붙이면 될 정도였습니다.

영어로 강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강의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버릇이 생겼고, 그 버릇 덕분에 여러 책을 쉽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막상 해보니 경제학 강의는 영어로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어 강의를 그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Princeton 있을 때 조교(preceptor)로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강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500명 정도의 경제학원론 강의를 맡아 일주일에 두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0명 정도씩 열 몇 개의 반으로 나눈 다음 조교들이 한 시간씩 가르치게 합니다.
그걸 두 학기 가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초짜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화자찬을 하기가 민망하기는 하지만, 내 강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시를 가르치는 너댓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가르치니 엉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그 점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국 학생들에게 군림하며 살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 친구들에게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품을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나와 친하게 지내는 미국 녀석이 내 연구실로 찾아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bullet'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릿'이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그 친구가 맞는 발음은 '불릿'이라고 교정해 주더군요.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심술을 부렸습니다.

"야, 임마. 너 내가 bullet이라고 말한 것 알아들었지?"
"넵"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됐지 무엇이 문제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발음한다. 알간?"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그 친구가 내 영어 교정해 주는 게 웬지 기분이 나쁘더군요.

교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을 출판하는 일인데, 난 그 점에서 그리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박사논문 정리해 저널(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보낸 것은 레퍼리 두 명이 게재 가능이라고 판정했는데 한 명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정도면 editor가 게재 쪽으로 결정해도 되는데, 잔인하게 게재 불가란 결정을 내리더군요.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편지를 받으니 힘이 쏙 빠지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비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간의 착오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강제출국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그 일이 계속 꼬여 귀국하기 직전까지 나를 괴롭혔습니다.
강제출국 통보 받고 변호사 찾아가 잠시 늦추고 하는 일을 몇 번씩이나 거듭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못된 변호사 만나는 바람에 돈도 많이 날렸구요.

내가 Albany에서 3년 반을 지냈는데, 그 일이 완전히 해결되는 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 점에서도 운이 아주 나빴던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좋은 논문 쓰지 못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운찬 선생님이 총리 후보가 되고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분의 논문 실적이 그리 화려하지 않은 것을 본 어떤 네티즌이 "정운찬 교수 알고 보니 논문
별로 쓴 게 없네"라는 글을 올렸더군요.
서울대 총장까지 역임했으니 세계적인 업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 연구 잘해서 총장 된다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총장은 행정능력 때문에 뽑히는 거지 연구
실적 때문에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언론 보도를 보니 그런 기대와 크게 다르다는 생각에서 그 글을 썼나 봅니다.

웃기는 것은 그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준구 교수도 마찬가지야."라는 댓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정운찬 선생님이 언론을 타면서 나에게까지 망신살이 뻗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난 그 댓글에 대해 별 유감이 없습니다.
난 언제나 내 자신을 떳떳이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만 많이 쓴다고 좋은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쓴 책들이 수많은 학생들의 빛이 되어 주었다면 톱 저널에 논문 실은 것에 비해 못할 바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책을 개정할 때마다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미시와 거시에서 베스트셀러를 쓴 우리 두 사람이 생각보다 논문 실적이 적다는 데 대해 놀라
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비극입니다.
박사학위 따서 귀국하자는 생각으로 유학을 떠난 세대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
는 말입니다.
나나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우리 세대에서는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니다.

그 당시 경제학과에는 나까지 포함해 한국인 교수가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한국인 대학원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간 해만 해도 한국에서 4명이나 유학을 왔습니다.
나는 마치 꼬마대장처럼 그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한국 학생으로서는 나이도 비슷한 내가 친하게 지내기가 쉬웠겠지요.
그 사람들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도 있고, 금통위원도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시민운동으로 유명한 고려대의 장하성 교수도 내 제자였습니다.
Albany에서 경제학 석사 따고 Wharton으로 갔으니까요.



Albany는 New York시에서 자동차로 세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도 겨울이 몹시 춥고 눈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늦은 가을이 되면 길고 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나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겨울을 제외하면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은 다른 어떤 곳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Albany의 봄도 무척 아름답지요.

여름은 건조하고 시원해서 정말 최고입니다.

사실 Princeton의 여름은 습기가 많아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학생시절 줄곧 에어컨 없이 지냈는데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는 Princeton의 여름이 그리 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기후가 바뀌었나 봅니다.)

여름만 비교하면 Albany가 Princeton보다 몇 배나 더 좋았습니다.

가을 역시 단풍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북쪽으로 한 시간만 운전해 가면 Adirondack이라는 엄청나게 큰 주립공원에 이릅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아니 그 이상 클 것으로 짐작합니다.

수많은 산과 호수가 있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가을에는 인근 Vermont로 단풍 구경을 가는데,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단풍으로 새빨강게 물듭니다.

빨강계 단풍이 드는 사탕단풍 나무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을 때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한 것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난 테니스광이잖아요?

바로 그 취미가 있어 내 생활에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지속될 취미를 얻게 된 것은 중요한 모멘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때 테니스를 처음 친 건 아닙니다.

대학생 때도 조금 쳤지만 즐길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테니스가 약간 부르조아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어 그 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다.

지금 대학생이 골프 친다고 골프 용구 들고 캠퍼스를 누빈다면 어떤 인상이겠습니까?

그때 테니스 라켓 들고 다니는 학생이 그와 비슷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Albany에 교수로 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경제학과 학생들이 테니스 치러 몰려가더군요.

그 친구들에게 나는 잘 못 치는데 다음에 함께 가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교수가 그렇게 묻는데 감히 안 된다고 대답할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고 self invitation을 한 거지요.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 테니 언제든 오세요."

"정말이지?"

"정말이구 말구요."

그렇게 해서 나는 본격적으로 테니스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 테니스 사부 중 하나가 고려대의 장하성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뜨내기로 배우다 보니 품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기초는 소홀히 하고 실전을 통해 배운 셈이라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타부터 쳐야 하는데,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바로 시합을 하겠다고 우기는 나를 학생들이 말릴 수 없었지요.

내 특유의 '개폼 테니스'가 그렇게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개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실전에는 꽤 강하답니다. '뽕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듯, 정말 중요한 건 실전 아닙니까?)

"늦게 배운 xx질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늦게 배운 테니스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군요.

정말이지 그때는 날이 어두워지는 게 그렇게 아쉬울 수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은 학교든 아파트든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에 멤버만 되면 OK였지요.

경제학과 교수들과도 자주 쳤는데, 그때의 내 파트너가 현재 도쿄대학 교수로 있는

Yoshikawa Hiroshi(거시)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다른 일로도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동양 사람들끼리 친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거기서 가르친 지 3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은사님으로부터 경제학과 신규교수 공모가 시작되니 지원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기서 계속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미국 학생 아무리 가르쳐 봐야 전혀 보람이 없더군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지식을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돈독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사람을 뽑기만을 기다려 온 터였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지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나를 서울대학교로 불러오고 싶어 하시는 은사분이 여럿 계셨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서류를 만들어 보냈지요.

그런데 마감일 하루 전에 갑자기 서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지원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다시 만들어 속달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 교무처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를 잘못 읽고 미국으로 되돌려 보냈던 겁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경제학과의 어떤 교수 분이 국제우체국으로 가서 내 서류를 찾아 오셨

다고 하더군요.

아직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보관해둔 상태라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원서는 접수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내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 간신히 탈락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경제학부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문도 모르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배려를 해주신 선배님들이 고맙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한 후 난 지원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던 셈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사람이 서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채용되기로 결정되었다고 알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라는 한 마디만 했고, 우리는 여느 날처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만하게 들릴 테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저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원만 했을 뿐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깜깜 절벽이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모한다는 광고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말만 공모였지 실제로는 100% 공개된 채용절차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원했을 때 경제학과에서는 명실상부한 공모를 해보자고 결의했답니다.

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1표씩 행사해서 뽑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

정교수와 조교수가 똑같이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그 전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채용분야를 결정하는 차례였는데, 만약 재정학이라고 공고가 나면 내가 거의 확실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식으로 뽑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인가가 주장해서 '경제학 전 분야'로 모집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학 박사 가진 사람은 아무나 지원해라, 그러면 우리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메시지였지요.

그 동안 서울대학교가 사람 뽑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지원했습니다.

총 11명인가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는 자기 학년의 수석졸업자만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난 두 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채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나 안 뽑으면 누굴 뽑냐?"고 x배짱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후에 모든 사정을 알고 나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생각나서요.

서울대학교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게 8월인가였는데, 바로 학과장에게 달려가 다음 해 2월에 떠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해 9월 학기에 와줬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그건 의리 없는 행동이라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현재 가르치고 있는 대학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맘대로 떠나버린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건 후배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사람 뽑을 때 한국 사람은 의리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니까요.

1983년 12월 말 그 학기를 마친 직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장에 가는 날은 그곳 답지 않게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기 있을 때 낳은 둘째가 아들(윤복)까지 포함해 네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7년 반 만에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막상 거기를 떠나려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디든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내 머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 떠날 때처럼 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낯설어 마치 타국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몇 년이나 살았다고 20년 이상 산 한국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귀국 직후 한국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국했던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수입도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이었습니다.

12월 말에 귀국했는데, 3월 1일이나 되어서야 발령이 날 테니 그 동안 먹고 살 일이 막연했던 거지요.

아버님께서 얼마간의 돈을 주셔서 그걸로 간신히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고정 수입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요.

3월 16일 첫 월급을 탈 때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수 박봉으로 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집 문제도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

요즈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즉시 교수아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을 때에 비하면 사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겨우 교수아파트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 동안 기거할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얻어줘 노숙생활을 면했지만, 학교로 오가는 교통이 불편해 고생이 심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였는데, 그때는 지하철도 없고 버스노선도 없어 빙빙 돌아 학교에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교에 돌아 왔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다행히 발령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을 내줬습니다.

최소한 학교에 오면 내 연구실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쯤 되니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임 교수 발령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정신문화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서 한 달쯤 교육을 받고 와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을 거기 기숙사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아니 한국에 돌아와 강의 준비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은데 한 달 동안 잡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 은사님이신 이현재 선생님이 부총장직을 맡고 계셔서 그 분에게 사정을 말씀 드리고 교육 면제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분은 동정을 하면서도 난색을 표명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숙식하지 않아도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는 날 정신문화원에 가봤더니 각 대학의 신임 교수 발령 예정자 백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새로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면 무조건 4주 동안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 데모를 막는 첨병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86세대'라는 말 알고 있지요?

바로 그 세대들이 맹렬한 반정부 데모를 감행해 정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지요.

정부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학생 데모를 막아 주기를 바랐지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신임 교수들을 정신무장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다.

주로 친정부 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왔습니다.

교수들은 우리가 '어용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줄지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구역질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판청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 교수로 민정당(지금의 한나라당 전신)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사가 강연할 때는 스포

츠신문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쓰레기 같은 말 하는 사람과 한 바탕 논쟁을 벌였음직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스스로 초짜라는 의식이 있어 그 정도의 반항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발령도 받지 않은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에 동원한 불법적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라고 강요할 하등의 근거가 없었던 거지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횡포였구요.

권위주의 정권만이 그런 부당한 일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교수고 뭐고 정권의 횡포 앞에 한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슬픈 시절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보수라도 지급했으면 그나마 조금 나았을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4주를 꼬박 교육에 매달려 있게 만들려면 최소한 생계대책만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배려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미안한 기색조차 없더군요.

모교에 돌아오기 위해 나는 이런 험난한 길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겁니다.

지긋지긋하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교에서 처음 강단에 오르게 되는 감회가 정말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이 모두 몇 년이나 사귄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그 동안의 고생도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고국에 돌아왔고 꿈에 그리던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 이래 품어온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교수가 된 시점은 30살 때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 교수가 된 것은 34살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앓된 나이에 교수가 되었던 겁니다.

따져 보면 학생들과의 나이 차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

젊디젊은 나였기에 학생들도 스스럼없이 나를 따르

첫 제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2학번 학생들과는 아직도 친하게 지냅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법이지만, 나도 그때가 절절하게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모교에 돌아와 가르치게 된 것도 큰 행운이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만난 것도 큰 행운입니다.

내 제자들은 내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들과 함께 해온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나에게서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 년 동안도 늘 즐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